

한 영 옥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오장환 시의 교수법 연구

- 현실 인식을 중심으로 -

2007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서 윤 경

오장환 시의 교수법 연구

- 현실 인식을 중심으로 -

한 영 옥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서 윤 경

인 준 서

서윤경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고는 오장환의 시세계 전반에서 드러나고 있는 현실 인식을 규명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이에 대한 교수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의 시세계에서 드러나는 ‘현실 인식’의 양상은 자아성찰을 통한 자기인식, 식민지현실에서 고향인식, 민족정신의 발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의 자아성찰은 서출이라는 데에서 오는 콤플렉스로 자기부정과 전통에 대한 거부로 나타나고 있다. 시인은 자신을 부정하면서 이를 비애와 패배의 식으로 표출하고 있으며, 이는 식민지 현실에 대한 고향인식으로 옮겨간다. 식민지의 불안정한 생활공간에서 고향은 그리움의 공간이자, 과거 회귀의 공간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 대한 인식은 다시 ‘노래’라는 주제를 통해 민족 공동체에 대한 인식으로 변저 나간다. 이는 오장환 시에 나타난 전반적 주제의식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그가 특별히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인식을 구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세 가지의 주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수 방법과 그 실재를 고찰하였는데, 우선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문학 교과서의 분석이다. 현행 18종 문학 교과서에서 그의 시는 2종에 걸쳐 단 한편이 실려 있다. 더욱이 교과서의 본문이 아닌 상호텍스트성 차원의 보조 자료로 제시되어 있어 그나마 충분한 시교육이 이루어 질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는 교재 수록의 문제점의 대안으로 다양한 오장환 시의 교수법을 고찰하여 제시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자기인식’의 주제에 맞추어 ‘가족사 쓰기’를, ‘사회 인식’이라는 주제에는 ‘상호 협동 학습’을, ‘민족 공동체 정신’에는 ‘토론 학습’을 효과적인 교수법으로 모색해 보았다. ‘가족사 쓰기’란 오장환 시세계에서 나타나는 ‘자기인식’을 토대로, 학습자의 가족사를 작

성하여 시 창작에 활용하는 방법이다. 다음으로 오장환 시세계의 ‘상호 협동 학습’은 오장환 시의 식민지 현실 인식으로서의 ‘사회 인식’을 학습자가 사회와 관련한 정보를 나누고 시 텍스트 분석을 통해 학습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제시한 ‘토론 학습’은 시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시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자료를 활용하여 소집단끼리 토론을 하는 학습활동이다.

다음으로 다양한 주제에 따른 교수법을 바탕으로 교수-학습의 실재를 제시해 보았다. 교과서 수록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실 인식’ 측면에 맞추어 교수하기 위해 새로운 단원을 설정하고 학습 체재로는 <고향 앞에서>를 제시하여 구체적인 실재를 마련하였다.

이상과 같은 오장환 시세계의 규명과 교수 방법을 통해 오장환 시교육은 다음과 같은 교육적 의의를 지닌다고 보았다. 우선 학습자는 오장환 시를 통하여 시대적 배경을 간접 체험함으로써 역사의식을 갖게 된다. 이를 구체화하여 살펴보면 학습자는 오장환 시세계를 학습함으로써 첫째, 자기인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 보았다. 둘째, 사회에 대한 관심과 그를 통한 인식의 확장을 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셋째, 문학교육의 목표이기도 한 민족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본고는 이상과 같은 교육적 의의를 바탕으로 이전의 연구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오장환 시교수법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시교수법의 실재를 마련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2. 연구사 검토 및 연구방법	4
II. 오장환의 시세계	12
1. 자아성찰로서의 자기부정 인식	14
2. 식민지 현실에서의 고향인식	23
3. 민족정신의 발현	30
III. 오장환 시의 교수 방법	38
1. 교과서 수록 작품과 문제집	39
2. 오장환 시 주제와 교수법	43
3. 교수-학습의 실제	55
IV. 오장환 시교육의 의의	66
V. 결론	70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빠르게 변화되는 사회에서 문학은 본래의 정서적 기능을 잃은 채, 학습자들에게 시험의 고득점을 위한 학습의 한 도구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 아래 개발된 교과서의 문학 영역에서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인, “문학을 문학답게 다루지 못하고 읽기 자료로서만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은¹⁾ 국어 교과에서 문학교육이 점차 설 자리를 잃었다는 것을 드러낸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을 놓을 수 없는 까닭은 시만이 가질 수 있는 교육적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 하겠다. 시는 고도의 언어능력을 요구하고 또한 지적인 통찰력을 요구한다. 이에 학습자의 언어표현력과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시는 삶을 응축하는 장르적 특성을 갖는다. 즉 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서정적 언어로 함축하여 역사의 현실을 반영해왔다. 이처럼 시교육을 통해 우리는 현실에 대한 예민한 인식과 미래를 가늠하는 정신을 기를 수 있다.

시교육의 필요성은 현대의 삶 속에서 더욱 절실하게 드러나고 있다. 현대는 인터넷에 의해 많은 정보가 넘쳐나며, 이러한 정보로 인해 우리의 삶은 어느 때보다 다채롭고 풍요로워졌다. 반면 유해한 정보 또한 쉽게 접하게 되어 곳곳에서 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상업화의 교묘한

1) 유영희, 「새로운 교육과정 논의의 현황-문학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국문학교육학회, 2005, p. 82.

2) 國定 高등학교 『국어(상)·(하)』에서 현대시를 다루고 있는 단원은, 국어(상)의 6단원 (노래의 이름 다음-「진달래꽃(김소월)」, 「유리창(정지용)」, 「광야(이육사)」, 「여승(백석)」) 뿐이다. 그 밖에는 고등학교 2·3학년 국어의 심화교과인 문학으로 선별되어, 필수가 아닌 선택과목이 되었다.

상술로 청소년들까지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온라인 게임을 들 수 있다. 온라인 게임은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하기 위하여 폭력과 살인과 같은 범법적인 행위까지도 여과 없이 다루고 있다. 청소년들은 컴퓨터의 마우스 조작만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영상을 쉽게 접하게 되었고, 이는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문제로 인하여 현대에서의 교육은 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인성함양 측면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문학교육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문학 속에 담긴 삶의 의미를 파악하는 활동을 통해 현실을 이해하는 데까지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특히 한국현대시사에 있어 민족 수난기인 일제침략기는 많은 시인들의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과 그 문학적 성과를 볼 수 있는 시기이다. 그중에서도 일제의 횡포가 극에 달했던 1930년대에 주목받은 시인으로는 끊임없이 시작(詩作)에 몰두했던 오장환이 있다.

오장환은 1933년 11월 「조선문학」에 <목욕간>을 발표하면서 당대 문단의 주목을 끌었다. <목욕간>은 이야기체 형식을 통해 농촌의 단면을 사실적으로 그려 많은 이들의 호평(好評)을 받았다. 이후에 그는 월북하기 전까지 총 4권의 시집을 내는 등 일제 시기의 곤경 속에서도 활발한 창작활동을 하였다. 이는 불안정한 사회적 현실에도 그가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해 끊임없이 사고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그의 시에는 자기부정과 함께 전통에 대한 거부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러시아의 시인 에세닌의 영향을 받아 농민과 농촌에 대한 그의 관심이 농촌 현실에 대한 인식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 인식과 반영은 다양한 고향 이미지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오장환에게 있어서 고향은 그리운 과거의 공간이자, 어두운 식민지 현실을 인식하게 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또한 피폐한 현실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이상

적 회귀의 공간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고향의 이미지 속에 드러나는 향토적 서정은 도시에 길들여져 삭막해진 현대인의 정서를 보듬을 수 있는 매개로 작용한다.

오장환은 이렇듯 당대의 현실을 시를 통해 열정적으로 풀어내며 자신의 시적 입지를 마련하였으나 자진 월북으로 인하여 그의 시적 성과는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었다. 또한 1988년 해금이 되었음에도 보수적 입장을 고수하는 교육계에서도 여전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현재 오장환에 대한 시 작품은 문학교과서의 심화단계나 문제집에서 간혹 만날 수 있을 뿐이다.

본 연구는 그의 작품에 나타난 예리한 현실 인식의 정서에 주목하고자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장환이 일제 식민지의 현실과 함께 해방정국의 전경을 시라는 서정 문학을 통해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오장환은 자신의 작품을 통하여 식민지 현실을 드러내는 것으로 암묵적인 저항을 시도하였다. 또한 그의 작품 전반에 드러나고 있는 일제시기의 비정한 현실은 그의 작품에서 감각적인 시어를 통하여 형상화되고 있다.

교육적 측면에서도 오장환의 시는 여러 가지 의의를 지니고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학습자들에게 과거 식민지배 역사를 담은 오장환의 시는 과거와 소통하는 매개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오장환의 시에서 드러나는 현실에 대한 인식은 청소년들에게 자극제가 되어 현실에 대한 예리한 시각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교육적 의의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현실의 반영 의식을 학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장환의 시를 취하고자 한다. 시교육적 측면에서 오장환의 시를 다룬 연구가 아직까지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오장환 시의 교수법에 대한 제언으로서의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2. 연구사 검토 및 연구방법

오장환은 1933년 11월 「조선문학」에 <목욕간>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등단하였다. 열아홉에 첫 시집 『城壁』(風林社, 1937)을 내고 곧 뒤이어 『獻詞』(남만서방, 1939), 『病든 서울』(정음사, 1946), 『나 사는 곳』(獻文社, 1947)³⁾을 서른 살 이전에 출간하였다. 이후 월북하여 시집 『붉은기』(1950)의 출간을 마지막으로 지병이었던 신장병으로 생을 마감하였다. 이밖에도 역시집 『에세-닌 詩集』(動向社, 1946)과 산문 25여 편⁴⁾이 전하며 시집에 미수록된 작품도 상당수가 있는 다작과 편력의 시인이다.

이러한 1930년대의 활발한 활동에 비해 오장환은 자발적인 월북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1988년 해금조치 이후에야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오장환에 대한 연구는 해금조치 이전과 해금조치 이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당대의 단평들을 통해 당시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많은 학위논문과 연구서를 통해 전체적인 시세계를 조감할 수 있다.

오장환에 대한 당대의 단평으로는 김기림, 민태규, 김광균, 김동석 서평이 있는데, 이 중 김기림의 논평⁵⁾이 제일 먼저 눈길을 끈다. 김기림은 오장환을 일러, “오장환씨는 일찌기 길거리에 버려진 조개 껍질을 귀에 대고도 바다의 파도 소리를 듣는 아름다운 환상과 직관의 시인이었다”라며 그의 서정성을 높이 평가하였다. 덧붙여 오장환의 처녀작인 『성벽』이 “새 타입의 서정시”를 세웠다며 긍정적인 평을 내렸다.

3) 시집 『病든 서울』이 『나 사는 곳』보다 먼저 출간되었으나, 『나 사는 곳』의 수록시편들의 대부분이 『病든 서울』의 시편들보다 앞서 제작 또는 발표되었다. - 김학동 편, 『오장환 전집』, 국학자료원, 2003, p. 5.

4) 문학론에 해당하는 것이 10편, 문화론 및 시론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 4편, 수필 6편, 미술평론 2편, 기타 서발문 3편이 있다. - 이은봉, 『한국현대시의 현실 인식』, 국학자료원, 1993, p. 143.

5) 김기림, 「<성벽>을 읽고」, 김학동 편, 위의 책, pp. 282~283.

두 번째 시집 『헌사』에 대한 단평으로 민태규와 김광균을 들 수 있다. 민태규는 오장환을 현실의 비극 앞에 목 놓아 울었던 시인이라 칭했다. 또한 그를 이르러 현실을 호통해 보았으나 결국 공상적 로맨티시즘으로 떨어지는 그 현실에서의 상처를 숨기는 비극을 간직한 시인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오장환 시에는 비장하며 힘찬 결의의 빛이 있다고 평하고 있다.⁶⁾ 이렇듯 민태규가 오장환의 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과 달리 김광균은 부정적인 평을 하였다. 그는 오장환의 첫 시집 『성벽』을 좋게 평하고 있는 반면에, 두 번째 시집에 대해서는 새로운 미학의 폭풍을 준비 없이 나열하고 있다며 젊은 시풍(詩風)에 대해 경계의 빛을 나타냈다.⁷⁾

위와 같은 시집에 대한 평에서 벗어나 김동석은 「吳章煥論」을 통해 그를 “濁流의 詩人”이라 칭했다. 인류의 역사를 탁류라 할 때, 이 역사의 탁류를 잘 표현한 시인이 바로 오장환이라는 것이다. 芝溶의 시가 너무 맑아서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하면서, 해방 후 많은 시가 쏟아져 나왔으나 그만큼 당대를 잘 읊은 시가 없다고 보았다.⁸⁾

위와 같이 당대 평가가 감상적인 인상비평에 그치고 있는 면이 없지 않으나, 이를 통해 오장환에 대한 시단의 관심과 그의 시적 입지를 엿볼 수 있다. 또한 당대의 문인들이 오장환의 현실 인식과 서정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린 반면, 젊은 시인의 실험적인 시풍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이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이러한 당대의 단평을 길잡이로 본격적으로 오장환론으로 옮겨가는 시기는 1980년대 해금조치 이후이다. 오장환에 대한 연구를 크게 세 가지 갈래로 나누어 살펴보면, 첫 번째는 자료 정리 및 전기적 생애의 연구, 두 번째는

6) 민태규, 「시집 《헌사》를 읽고」, 김학동 편, 위의 책, pp. 286~288.

7) 김광균, 「오장환 시집 《獻詞》」, 김학동 편, 위의 책, pp. 289~290.

8) 김동석, 「濁流의 音樂」, 김학동 편, 위의 책, pp. 295~301.

비교문학적 연구, 세 번째는 시대와 문단의 상황에 대응한 현실 인식과 고향인식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들 수 있다.

오장환의 시에 대한 자료 정리 및 생애 및 전기적 연구자로 최두석, 김재용, 김학동 등을 들 수 있다.

최두석은 오장환의 시집을 총 2권의 전집⁹⁾으로 묶어 정리하였다. 오장환이 월북이전에 출간한 네 권의 시집과 산문 그리고 미수록된 시편들을 실어 놓고 있다. 김재용은 최두석의 전집과 달리 오장환이 월북한 이후에 발표한 마지막 시집, 『붉은 기』를 발견해 그동안 제목만 알려진 시의 내용을 실었다.¹⁰⁾ 오장환 전집이 이미 몇 차례 간행되었음에도 전작품을 수렴하지는 못했는데, 김학동은 그동안 실리지 않았던 오장환의 장시들과 함께 새로 입수된 산문을 엮어 폭넓은 자료를 구비하여 전집을 엮었다. 또한 『오장환 평전』과 『오장환연구』¹¹⁾에서 원전대조를 통한 서지적 연구와 생애 및 전기적 접근을 통한 문학세계 해석 등의 통시적인 연구 성과를 보였다.

두 번째, 다른 시인과의 작품세계 등의 비교문학적 연구로는 장영수, 오교정, 천기수, 강지영, 이은봉, 이원규 등의 논문을 들 수 있다.

장영수는 해금조치 후 오장환 시의 첫 연구자로, 오장환과 이용악의 시를 비교 연구하였다. 오장환의 처녀작인 『城壁』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시세계를 조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시어의 특징과 함께 시세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오장환의 시를 살피고 있는 초기의 연구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¹²⁾ 특히 이용악과 백석은 오장환과 함께 비교연구에

9) 최두석, 『오장환 전집1』, 창작과 비평사, 1997.

———, 『오장환 전집2』, 창작과 비평사, 1989.

10) 김재용, 『오장환전집』, 실천문화사, 2002.

11) 김학동, 『오장환연구』, 시문학사, 1990.

———, 『오장환 전집』, 국학자료원, 2003.

———, 『오장환 평전』, 새문사, 2004.

12) 장영수, 「오장환과 이용악의 비교 연구」, 고려대 대학원 박사논문, 1987.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당대에 주목받던 시인이며 또한 월북 시인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용악과 비교한 연구로는 오교정이 있다. 오장환과 이용악이 지향하는 고향을 실락원과 복락원으로 나누고 각각 절망적 공간과 희망적 공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악과 오장환의 시에서 고향이 갖는 의미와 지향을 두 개의 공통된 주제에 맞추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¹³⁾

반면, 천기수는 백석 시의 작가의식을 오장환의 시와의 대비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백석과 오장환이 비슷한 시기에 시를 발표했다는 점과 일본 유학파이며, 월북시인이었기에 그동안 논의되지 못했다는 등의 공통점을 찾아 시를 비교하였다. 백석을 보수적 의식을 가진 시인으로 평가하는 반면, 다양한 변모를 보인 오장환과는 차이를 두었다.¹⁴⁾ 이러한 비교연구는 좀 더 여러 명의 시인을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강지영과 이은봉은 백석, 이용악, 오장환을 1930년대 후기의 현실 인식과 관련지어 비교하고 있다. 강지영은 오장환을 치열한 현실 인식을 토대로 모더니즘을 일궈 놓았던 시인이라 평가하고 있다.¹⁵⁾ 또한 이은봉은 시문학적 입지와 더불어 오장환의 시에 나타난 현실 인식을 연구하였다. 오장환 시의 현실 인식은 파괴된 자아와 시형식의 해체, 전통의 부정과 문명비판에서 드러난다고 보았다. 또한 오장환 시가 식민지 현실에서의 가족과 고향에 대한 상실의식을 통해 현실을 드러내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그의 시는 비판적인 현실에 대한 반영이며 그 중심대상은 봉건적 인습의 세계, 자본주의적 퇴폐와 타락의 세계, 유이민의 세계라고 지적하고 있다.¹⁶⁾ 이러한 오장환의

13) 오교정, 「이용악 오장환 시에 나타난 고향 이미지의 대비 연구」, 진주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2.

14) 천기수, 「백석시에 나타난 작가의식연구:오장환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경북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1.

15) 강지영, 「1930년대 후반기 현실주의 시연구:백석, 이용악, 오장환을 중심으로」,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9.

16) 이은봉, 「1930年代 後期詩의 現實認識 研究 : 백석· 이용악· 오장환의 詩를 중심으로」, 숭실대 대

현실 인식에 주목하여 이원규 또한 1930~1940년대의 근대시에서 나타난 고향의식을 정지용, 백석, 오장환, 이용악을 통해 연구하였다. 이 중에서 오장환 시에서 ‘고향’은 비판적 대상이자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양면성이 드러나게 되고, 자기 찾기의 내면적 공간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¹⁷⁾

오장환에 대한 비교문학적 연구들은 주로 1930년대에 주목받는 시인이었으나, 월북하여 그동안 논의 되지 못했던 여러 시인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시대에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주제 의식’과 ‘현실 반영’ 측면에서 비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로써 오장환 시의 뚜렷한 특징을 살필 수 있으나 개괄적인 내용만을 다루거나 한정된 몇 작품만을 거론하는 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세 번째, 오장환 시세계 연구는 현실 인식 측면과 고향을 주제로 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특히 1930년대의 현실에 대한 의식 연구는 그 시기의 특수성 때문에 자주 거론되어 왔다. 이에 대한 본격적 연구로 박윤우, 심재휘, 박정애의 연구 등이 있다.

박윤우는 오장환의 시 전개과정을 시기를 3기로 나누어 1기는 1933년 등단 이후 1939년 두 번째 시집 헌사를 간행할 때까지, 2기는 1939년 말부터 1945년 행방이 되기까지의 시기, 3기는 해방 이후 1948년 오장환의 월북이 이뤄지는 시기로 보았다. 이를 토대로 시의 현실 인식과 특징을 살피고 있는데, 시적 형성의 기반의 배경이 되는 것을 모더니즘의 수용과 한계 극복이라고 보고 새로운 시문학을 창조하고자 하는 갈등의 상황 속에서 전개되는 독자성을 갖추고 있음을 지적하였다.¹⁸⁾

학원 박사논문, 1992.

———, 『한국현대시의 현실 인식』, 국학자료원, 1993.

17) 이원규, 「한국시의 고향의식 연구:1930~1940년대 시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4.

18) 박윤우, 「오장환 시 연구:비판적 인식의 변모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9.

이전 연구가 문학사적 언급에 그쳤던 것을 필두로 심재휘는 시의 의도 분석과 그에 따르는 갈등의 내적 필연성을 짚고 있다. 그는 월북하기 이전에 출간된 네 권의 시집을 바탕으로 오장환의 시작에 영향을 미쳤던 내적 갈등과 현실 인식을 살피고 있다. 또한 오장환을 ‘인간을 위한 문학’을 주창했던 ‘생활의 시인’이라 하면서 그를 한 시대를 살다간 열정의 문학가로 평가하고 있다.¹⁹⁾ 그러나 초기의 연구로서 시작품 외에 시론이라든지 문학론에 대한 언급이 없는 등의 접근방식이 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 문제가 보인다.

반면 박정애는 오장환의 문학론까지 소급하여 다루고 있다. 시인이기 이전에 먼저 인간이 되겠다는 그의 시관을 바탕으로 생애와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서출 신분으로 인한 열등의식은 봉건 질서에 대한 거부 의식으로 발전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식민지 현실에 대한 부정과 비판, 자의식의 내면화와 역설적 긍정의지의 구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그의 시가 관념적 현실 인식과 소박한 신념 수준의 전망 설정으로 실생활과의 괴리가 생기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²⁰⁾

다음으로 오장환 시의 ‘고향인식’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도시적 체험의 절망으로부터 다시 찾는 원형적 이미지의 공간’이자, ‘식민지 현실의 피폐한 모습을 드러내는 공간’, ‘자기 찾기의 내면적 공간’으로 분석된다. ‘고향’은 오장환 시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주제로 많은 연구 논문이 이를 증명하는데 여기에 김신정, 이미순, 이원규 등의 연구가 있다.

김신정은 오장환의 시에서 드러나고 있는 식민지 근대 체험과 현재 삶에 대한 부정의 의미가 고향을 기억하게 한다고 보았다. 오장환에게 있어 ‘고향’은 ‘원형적 이미지로서의 고향’과 ‘현존하는 역사적 실체로서의 고향’의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 고향은 현실을 부정하게 하는 힘인 동시

19) 심재휘, 「오장환 시 연구」, 고려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0.

20) 박정애, 「오장환 시 연구」, 전북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3.

에 낭만적이고 초월적인 지향으로 인해 현실을 벗어나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다.²¹⁾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미순과 이원규도 고향을 버리는 대상이자 돌아가고픈 대상으로 그리고 있다.

이미순은 고향을 근대가 가져온 변화에서 벗어나는 도구로 해석하였다. 오장환 시의 고향은 자전적 고향으로, 문명비판의 수단이며 조국으로 상징되며 과거 회귀적인 공간이라는 의식 변화를 거친다고 토로하고 있다. 반면에, 오장환의 고향이 단순히 소재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닌 존재론적 본향의 공간으로서 갖는 의미를 발견하였다. 또한 고향이 주체의 동일화에 대한 시인의 욕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보았다. 주체 동일화는 상상계에서 상징계로의 진입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와 동일시하려는 욕망으로 표방된다. 여기서 해방 후의 고향은 타락한 질서를 극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는 유토피아적인 공간으로 그려진다고 보았다.²²⁾

이원규는 오장환에게 있어 고향과 어머니는 자기의 존재에 대한 상실감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끊임없이 찾는 시적 대상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오장환에게 고향은 ‘버림의 대상’에서 ‘그리움의 대상’, 또 다시 ‘회귀의 공간’으로 인식이 변모하고, 마침내 ‘공동체적인 참여공간’으로 형상화된다고 보았다.²³⁾

이상과 같이 오장환에 대한 논의는 단평에서부터 학위논문 그리고 학술지의 소논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의 작품을 월북 이전에 출간된 것에 국한하여, 네 권의 시집을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시에 나타난 공간 이미지를

21) 김신정, 「근대체험과 ‘고향’을 향한 시선-식민지 시대 오장환 시 연구」, 『畿甸語文學 vol.10-11』, 1996.

22) 이미순, 「오장환 시에서의 ‘고향’의 의미화 과정 연구」, 『한국시학연구』, 한국시학회, 2006.

23) 이원규, 「오장환 시 연구:비판적 인식과 잠재적 인식의 대응 관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0.

등의 형식 측면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고는 이와 같은 연구들을 자양으로 삼으며 오장환 시의 교수방법에 주력하고자 한다. 오장환 시의 현실 인식 측면을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하고, 이를 교수법에 대입하여 효과적인 오장환 시교육을 모색하고자 한다.

II장에서는 오장환 시의 ‘현실 인식’ 측면을 초점을 두어 세 가지 주제를 찾아 교수법의 전제를 마련해 보았다. 그 주제로는 ‘자기부정을 통한 자기인식’과 ‘식민지 현실을 통한 고향인식’ 그리고 ‘민족정신의 발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하여 III장에서는 주제에 따른 교수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교수법의 기초는 오장환 시의 주제와 7차 교육과정에서의 문학 교과서 분석을 바탕으로 하였다. 2종의 문학교과서에 실린 오장환의 작품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양한 교수법을 마련하고 그 교수-학습의 실체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오장환 시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의의를 모색하였다. 오장환 시의 ‘현실 인식’ 측면의 시교육에서 얻는 역사적 체험으로서의 교육적 효과를 고찰하고 그에 대한 의의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범위는 오장환의 북한과 러시아에서의 생활이 바탕이 되는 마지막 시집 『붉은 기』를 제외한 네 권의 시집, 『城壁』·『獻詞』·『나 사는 곳』·『병든 서울』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다루는 시의 원전은 비교적 최근에 출판된 김학동 편의 『오장환전집』으로 삼고, 이전에 출판된 김재용 편의 『오장환전집』은 참고자료로 한다.

II. 오장환의 시세계

문학에서 역사와 사회적 현실은 좋은 소재가 되어 많은 작품들에서 다루어졌다. 작가와 시인에게는 고난과 역경이 오히려 창작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자극제가 되어 나타났던 것이다. 그리하여 민족에게 치욕의 역사로 기억되는 일제 식민지 시대에는 현실을 노래한 다양한 작품과 시인들이 대거 등장하였다. 그 중에서도 오장환은 개인적인 가족사와 식민지 현실 체험을 감각적이고 예리하게 시로 형상화하여 문단의 주목을 받았다.

오장환 시에서 드러나는 현실에 대한 인식은 그의 시론을 통해 더욱 구체화된다. 그는 “시는 생활의 반영이다.”²⁴⁾라고 규정지으며 생활과 사회현실, 그리고 시가 연속선상에 놓여 있음을 견지하였다. 이러한 시관은 김소월의 작품을 민족성의 발현으로 분석하는 데에서도 드러난다.

「초혼」을 통하여 느끼는 것은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 아니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형언할 수 없는 공허감을 깨닫는 것이요 또 작자와 함께 이 상실한 것에 대한 애절한 원망(願望)을 돌이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초혼」이 의도한 바는 어느 것이라도 좋다. 적어도 이 땅에 생을 타고난 우리가 여기에서 느끼는 것은 숨길 수 없는 피압박민족의 운명감이요 피치 못할 현실에의 당면이다.²⁵⁾

오장환은 위의 글에 앞서 독자가 시를 통하여 어떠한 연상을 하든지 각자의 감양대로 그 의미를 찾으면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 속에는 만인이 공통

24) 오장환, 「민족주의라는 연막-일련의 시단시평」, 김학동 편, 『오장환 전집』, 국학자료원, 2003, pp. 592~600.

25) 오장환, 「조선시에 있어서의 상징-소월시의 <초혼>을 중심으로」, 김재용 편, 앞의 책, p. 478.

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고 그것이 어떠한 공통성을 가지느냐에 따라 작품의 위치가 결정되는 것이라 토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김소월 시에서 드러나는 공통의 느낌을 그는 일체에 의해 꺾박받는 민족의 운명에서 찾았다. 오장환이 다른 시인의 시에서 찾고자 했고, 시를 통하여 드러내려 했던 것이 현실에 대한 인식이었다는 것의 반증이라 하겠다. 이는 오장환의 시집 『病든 서울』의 서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 모은 것이 8월 15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나의 쓴 시의 전부이다. 처음부터 서문 같은 것은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일기처럼 날짜를 박아가며 써 나온 이 시편, 이 속에 불러진 노래가 모든 것을 해답할 것이다.

대체로 전일 내가 쓴 시들이 어드런 큰 욕심과 자기를 떠난 보람을 구한 것에 비하면 여기 이 시집 속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자신에 충실하고 어떻게 하면 이 현실에 똑바를 수 있을까를 찾기 위하여 다만 시밖에는 쓸 줄도 모르는 내가 울부짖고 느끼며 혹은 크게 결의를 맹세하려던 그날그날을 조목조목 일기로 적은 것이 이 시편들이다.²⁶⁾

1946년 서울대학부속의원의 입원실에서 쓴 위의 서문에서 오장환은 자신의 시가 현실을 똑바로 보기 위해 쓴 일기라 말하고 있다. 시를 체험을 바탕으로 쓰는 일기라고 지칭함은 ‘예술을 위한 예술’이 아니라 ‘삶을 통한 예술’이라는 시관(詩觀)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다양한 산문²⁷⁾에서

26) 오장환, 시집 『病든 서울』 서문, 김학동, 앞의 책, pp. 722.

27) 오장환은 산문 「방황하는 시정신」(인문평론, 1940)에서 “신뢰할 만한 현실이 어디 있느냐”며 자책과 함께 진정한 시정신에 대한 생각을 토로한다.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시정신을 주창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의 이러한 문학관은 「문단의 파괴와 참다운 신문학」(조선일보, 1937)에서도 보인다. 모리야마(森山啓)는 “현실은 예술의 체제로서 선택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 선택에는 시인의 현실에 대한 태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오장환은 모리야마의 이러한 글을 인용하여 시는 시인의 생활 안에서 탄생하므로, 시인이기 이전에 먼저 인간이 될 필요가 있다고 토로한다. 이처럼 그는 생활 속에서 시의 체제를 찾으려 노력하였고, 또한 현실의 삶을 반영하려 하였다.

오장환이 지향했던 삶과 문학을 일직선에 놓고 보는, ‘연속시관(문학관)’이 드러난다.

이와 같은 오장환 시에서 드러나는 현실 인식은 크게 세 가지로 분리할 수 있다. 첫째는 자아성찰로서의 자기부정 인식이며, 둘째는 식민지 현실을 통해 드러나는 고향인식이고, 셋째는 ‘노래’를 통해 구현된 민족정신의 발현이다. 이에 본장에서는 오장환 시의 현실 인식 교수법 구현에 앞서, 오장환의 현실 인식이 시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살펴봄으로써 그 전제를 마련하고자 한다.

1. 자아성찰로서의 자기부정 인식

오장환은 1918년 5월 15일 충북 보은군 회인면 중앙리(현재 회북면 중앙리) 140번지에서 아버지 오학근(吳學根)과 어머니 한학수(韓學洙) 사이에서 4남 4녀 중 3남으로 태어났다. 이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연령 차이는 22세였다. 어머니 한학수는 처음엔 오학근의 첩실로 있다가 본처 이씨의 사망으로 적실로 재혼신고 되었다. 따라서 오장환도 처음엔庶 2남에서 후에 적출로 되면서 오학근의 4남 4녀 중 3남이 된 것이다.²⁸⁾ 신경림은 오장환의 이러한 출생이 그의 일생을 좌우한 콤플렉스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내놓는다.²⁹⁾ 최두석 또한 오장환의 전통에 대한 거부를 서자출신이라는 개인적 이유를 통해 찾아내고 있다. 당시까지만 해도 서자에 대한 차별의 유습은 완강한 시기였기에 오장환은 전통과 습속에 눌러 모진 괴로움을 맛보았을 것이다.³⁰⁾ 그리고 이러한 오장환의 가족사적인 개인체험은 사회에 대

28) 김학동, 앞의 책, pp. 732~735 <오장환 생애연보> 참고.

29) 신경림, 『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 우리교육, 2004, pp. 179~192.

30) 최두석, 『시와 리얼리즘』, 창작과비평사, 1996, pp. 49~51.

한 비판의식으로 표출된다.

서출에서 적출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큰 나이 차이에서 오는 정체성의 혼란은 시 「姓氏譜」등³¹⁾에서 전통과 자신에 대한 거부 의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내 姓은 吳氏. 어찌서 吳哥인지 나는 모른다. 可及的으로 알리워 주는 것은 海州로 移畝은 一淸人이 祖上이라는 家系普의 검은 먹글씨. 옛날은 大國崇拜를 유-심히는 하고 싶어서, 우리 할아버니는 진실 李哥였는지 常놈이었는지 알 수도 없다. 똑똑한 사람들은 恒常 家系普를 創作하였고 賣買하였다. 나는 歷史를, 내 姓을 믿지 않아도 좋다. 海邊가으로 밀려온 소라 속처럼 나도 껍데기가 무척은 무거웁고나. 수통하고나. 利己的인, 너무나 利己的인 愛慾을 잊을라면은 나는 姓氏譜가 必要치 않다. 姓氏譜와 같은 慣習이 必要치 않다.

- 「姓氏譜-오래인 慣習-그것은 傳統을 말함이다.」 전문, 『城壁』

“오래인 관습-그것은 전통을 말함이다”란 부제가 붙은 위의 시에서 그는 자신의 성(姓)에 대해 부정한다. 자신의 족보가 어찌면 할아버지가 매매를 통해 얻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불신은 그가 갖은 내면의식의 표출이다. 유교 문화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족보에 대한 불신은 곧 오장환을 둘러싼 사회에 대한 거부이자 자기부정이다. 자신이 서출이기에 받아야 했던 가족과 사회로부터 받은 상처가 자기부정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鄉愁」에서 “어머니는 무슨 必要가 있기에 나를 맨든 것이냐!”고 하며 출생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로써 자신에 대한 성찰이 시작되며 그

31) 오장환의 또 다른 시편 「宗家」, 「旌門」, 「城壁」에서는 ‘종가’와 ‘정문’이라는 유교적 관습의 산물에 대해 풍자하면서 전통에 대한 거부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전통은 보수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성벽」의 구절처럼 그에게 전통의 유습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답답한 성벽과 같았던 것이다.

것은 원죄의식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나요. 뭇章煥이요. 나의 곁을 스치는 것은, 그대가 안이요. 검은 떡
구렁이요. 당신이요.

외양조차 날 닮았으면 얼마나 깃브고 또한 信用하리요.

이야기를 들리요. 이야길 들리요.

悲鳴조차 숨기는 이는 그대요, 그대의 同族뿐이요.

그대의 피는 검어타지요. 불지를 앓고 검어타지요.

음부 마리아 모양, 집시의 게집애 모아,

당신이요. 충충한 아구리에 까만 열매를 물고 이브의 뒤를 따른 것
은 그대 사탄이요.

차디찬 몸으로 친친이 날 감어주시요. 나요. 카인의 末裔요. 病든 詩
사이요. 罰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능금을 따먹고 날 낳었소.

- 「不吉한 노래」 일부, 『城壁』

위의 시에서 시적 자아는 자신의 출생을 원망하며 창세기 신화 속 주인공
의 죄를 통해 자신을 표현한다. ‘어머니는 무슨 必要가 있기에 나를 맨든 것
이나!’라며 자신의 출생조차 거부하고 원망하는 「鄉愁」의 시적 자아가
「不吉한 노래」에서는 원죄의식 속의 자아로 나타난다. 자신의 이름을 먼
저 제시하면서 시작되는 「不吉한 노래」는 갖가지 은유적 표현을 통해 죄
로 시작한 인류의 자손임을 이야기 하고 있다. 시적 화자는 원죄를 짓고 에
덴의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이브가 아버지와 어머니요, 또한 최초의 살인
을 저지른 카인의 후예라고 비유하고 있다. 자신의 뿌리를 죄를 지은 주인
공들에게서 찾고 있음은 그의 깊은 절망의식의 표출이다. 이는 서정주의
「花蛇」³²⁾에서도 발견된다. 그 당시의 문단에 유행과도 같았던 ‘원죄의식’

모티프는 “보들레르의 악마주의와 원죄의식”의 영향을 받은 오장환의 시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³²⁾

한편, 원죄의식은 잃어버린 낙원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시적 자아의 욕망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평가되기도 한다. 시적 화자가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극단적으로 부정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더 이상 추락할 수 없도록 방어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³⁴⁾ 이처럼 오장환의 원죄의식의 내부에는 고뇌하는 인간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인류가 저지른 죄의 역사에서 그 자신이 느낀 절망의식이 ‘검은 먹구렁이’, ‘검은 피’, ‘까만 열매’처럼 어두운 색채 이미지로 표출되고, 이는 자신을 성찰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오장환의 자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다시 ‘병든’으로 수식되어 자신을 둘러싼 사회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故鄉이어! 黃昏의 저자에서 나는 아릿다운 너의 記憶을 찾아 나의 마음을 傳書鳩와 같이 날려보낸다. 情든 고삿. 썩은 울타리. 늙은 아베의 하-얀 상투에는 몇 나절의 때물은 回想이 맺어있는가. 옥어진 松林속으로 곱-게 보이는 故鄉이어! 病든 鶴이었다. 너는 날마다 야위어가는…….

어디를 가도 사람보다 일 잘하는 機械는 나날이 늘어나가고, 나는 病든 사나이. 야윈 손을 들어 오래서 동안 惰怠와 無氣力을 극진히 어루뭇었다. 어두어지는 黃昏 속에서, 아모도 보는 이 없는, 보이지 않는 黃昏 속에서, 나는 힘없는 憤怒와 絶望을 묻어버린다.

- 「黃昏」 일부, 『城壁』

32) 서정주의 「花蛇」의 “너의 할아버지가 이브를 꼬여내든 達辯의 햇바닥이 … … 우리 할아버지의안해가 이브라서 그러는게 아니라”에서 원죄의식이 보이고 있다. - 서정주, 『花蛇集』, 문학동네, 2001, pp. 15~16.

33) 오장환 시에서 자신을 “카인의 末裔”로 자처 하거나, “탕아”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는 보들레르가 惡神을 찬양한 시들과 유사하다고 본다. - 김학동, 『오장환연구』, 시문학사, 1990, pp. 117~120.

34) 이원규(2004), 앞의 글, pp. 58~61.

-이것아, 어서 돌아가자
병든 것은 너뿐이 아니다. 온 서울이 병이 들었다.
생각만 하여도 무섭지 않으나
대궐안의 윤비는 어디로 가시라고
글썸 그게 가로채었다는구나.

- 「어머니 서울에 오시다」 일부, 『病든서울』

「黃昏」에서 시적 화자는 자신을 “病든 鶴”·“病든 사나이”라고 말한다. 타향살이에 지친 화자는 기계화된 근대 문명을 살아가면서 타태(倦怠)하고 무기력해진 자신을 병들어 있는 대상으로 비유한다. 즉,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잃어버린 고향과 기계에 밀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사이에서 느끼는 무력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병이 들다’라는 수식은 그의 시집 『病든서울』에서 빈번하게 발견된다. 「어머니 서울에 오시다」에서 어머니는 자식의 입원실로 찾아와서 “병든 것은 너뿐이 아니다. 온 서울이 병이 들었다.”고 한다. 이는 병들어 있는 것이 자신 만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사회라는 자각이다. 여기서 오는 절망감을 어머니의 목소리를 빌려 담담히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病든서울』에서는 다양한 시적 대상 - “病든 말”(「구름과 눈물의 노래」), “병든 역사”(「The Last Train」), “병든 慰安”(「체온표」), “병든 탕아”·“병든 서울”(「病든 서울」), “병든 사람”·“병든 몸”·“병든 마음”(「입원실에서」) 등 - 이 ‘병든’으로 수식된다. ‘병이 들었다’는 비유는 시인 자신의 내면에서 드러나는 비애감의 표출인 동시에 사회에 대한 불만의 토로이다. 또한 이는 다시 자아비판으로 이어짐으로써 자신에 대한 패배의식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³⁵⁾

이러한 패배의식은 시뿐만 아니라 오장환의 실생활의 모습에도 나타난다. 지인(知人)의 서평³⁶⁾에 나타난 그의 모습은 나태하고 무기력함 그 자체이다. 그것은 식민현실을 살아가는 국민으로써 보편적으로 느끼게 되는 자의식이었다.

한편, 오장환은 절망과 방랑기질로부터 자신을 붙들어 주는 것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도라온 蕩兒라 할까
여기에 比하긴
늪으신 홀어머니 너무나 가난하시어

도라온 子息의 상머리에는
지나치게 큰 뉘비애
닭이 한 마리

아즉도 어머니 가슴에
또 내 가슴에
남은 것은 무엇이나.

서슴없이 고기뺨을 베어물다가
여기에 다만 헛되이 울렁이는 내 가슴
여기 그냥 뉘우침에 앞을 서는 내 눈물

35) 한정순, 「오장환 시의 현실 인식 연구」, 『호서어문연구 제4집』, 호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6, p. 111

36) “시계가 정오를 알려주어도 이 집 주인은 ‘과자마’를 입은 채, 자만의 ‘파이프’를 물고 그래도 이웃을 사랑하고, 때로는 어머니와 형제를 생각한다는 쉰티멘탈리스트, 이것이 곧 시인 장환이 살아오고 또 앞으로 살아갈 동양화적 묘사일 것이다.” - 민태규, 「시집 《헌사》를 읽고」, 김학동 편, 『오장환연구』, 시문학사, 1990, p. 286.

조용한 슬픔은 아련만
아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당신에게 받히었음을……

크나큰 사랑이어
어머니 같으신
받히옵이어!

그러나 당신은
언제든 괴로움에 못이기는 내 말을 막고
이냥 넓이 없는 눈물로 싸주시어라.

- 「다시 美堂里」 전문, 『나 사는 곳』

위의 시에서 시적 화자는 자신을 ‘돌아온 蕩兒’라 지칭하고 있다. 이는 별 다른 위장 없이 현존적 자아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시적 자아는 늙으신 어머니의 사랑에 의해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지난날의 자신을 반성하게 된다. 마주 앉은 상에서 남김없이 모든 것을 주시는 어머니의 사랑을 새삼스레 다시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어머니의 사랑은 “언제든 괴로움에 못이기는 내 말을 막고”에서와 같이 현실에서 받은 상처로 괴로워하는 시적 자아를 위로한다. 또한 어머니의 사랑을 드러내는 시조차도 온전히 어머니에 대한 사랑만으로 채우지 못하고, 현실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구절로도 풀이할 수 있다.

이처럼 현실에서 느끼는 자아의 괴로움은 해방의 순간에도 온전한 기쁨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아름다운 서울, 사모치는, 그리고, 자랑스런 나의 서울아,
나라 없이 자라난 서른 해,
나는 고향까지 없었다.
그리고, 내가 길거리에 자빠져 죽는 날,
“그곳은 넓은 하늘과 푸른 솔밭이나 잔디 한뼘도 없는”
너의 가장 변화한 거리
종로의 뒷골목 썩은 냄새나는 선술집 문턱으로 알았다.

그러나 나는 이처럼 살았다.
그리고 나의 反抗은 잠시 끝났다.
아 그동안 슬픔에 울기만 하여 이냥 질척어리는 내 눈
아 그동안 독한 술과 끝없는 비굴과 절망에 문드러진 내 쓸개
내 눈깔을 뽑아 버리랴, 내 쓸개를 잡아떼어 길거리에 팽개치랴.

- 「病든서울」 일부, 『病든서울』

여기서 시적자아는 서른 해를 나라 없이 살았고, 또한 고향도 없었다고 이야기한다. 선술집을 드나들며 괴로움에 질척이며 살았던 삶에 대해 다음 연에서 “그러나 나는 이처럼 살았다.”고 하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뿜는다. 그렇게 반항적으로 살았던 삶을 종결하고, 슬픔에 질척이는 눈과 비굴과 절망에 문드러진 쓸개를 뽑고 잡아떼어 버린다는 것은 앞으로의 삶에 대한 의지의 표출이다. 이는 나라 없이 지내며 겪었던 괴로움에 대한 표현이자, 그렇게 지내왔던 자신의 모습에 대한 성찰이라 할 수 있다. 시적 화자는 해방의 기쁨으로 격양된 분위기 속에서 나라가 없이 지내왔던 지난날을 회상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와 대비된 광복이 더욱 환희의 순간으로 그려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3개월 후에 발표된 「어머니 서울에 오시다」³⁷⁾에서는 마음과 바

른 뜻을 전할 수 없어 병든 시적 화자로 나타나고 있다. 해방이 주는 기쁨도 잠시 지도자들의 이권다툼으로 혼란한 나라는 다시 깊은 절망을 안겨주고, 이 속에서 오장환은 다시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장환은 전통의 습속을 거부하고, 부정적이며 위악적인 표현을 통하여 자기인식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 모든 자기부정은 상실된 자아로 그려냄으로써 비애와 절망을 현실로 내면화하고자 했던 오장환의 노력이었다. 오장환에게 자기부정은 자아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자아성찰의 한 방법이자, 현실에 대한 인식이었던 것이다.

한편 자아 찾기 과정 속에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기쁨이 되고, 방탕한 자신의 삶을 절제하게 만든다. 오장환은 첩실로 살았던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어머니를 통하여 방황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다시 현실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식민지 상황의 지식인으로서의 패배감과 절망감은 어머니의 사랑으로도 완전히 치유되지 못하고 현재의 삶에 대한 부정으로 다시 드러나고 있다. 이는 현실을 바라보는 태도와도 관련되어 '고향'을 기억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고향은 태초의 공간, 과거의 경험에 존재하는 원형적 이미지로 현실을 부정하게 하는 동시에 현실을 벗어나게 해주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³⁷⁾ 그에게 고향은 유년을 보낸 공간이자, 식민지 현실을 벗어나게 하는 공간 등의 의미로 다양하게 형상화되고 있다.

37)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 가슴에 넘치는 사랑이 이 가슴에서 저 가슴으로/ 이 가슴에 넘치는 바른 뜻이 이 가슴에서 저 가슴으로/ 모-든 이의 가슴에 부을 길이 서툰어 사실은/ 그 때문에 病이 들었습니다. - 「어머니 서울에 오시다」 일부

38) 김신정, 앞의 글, p. 547.

2. 식민지 현실에서의 고향인식

오장환의 시에서 고향은 중심적 주제로 등장하며, 초기 시에서 고향은 보수적인 전통에 대한 비판의 공간으로 나타난다. 시인은 유교적인 유습이 지배하는 고향을 버리고 새로운 서구문명의 통로가 되었던 수부와 해항도시를 찾아 간다. 이러한 해항도시에서의 삶은 「海港圖」, 「鄉愁」, 「賣淫婦」, 「魚肉」 등의 시에서 나타난다. 이 작품들에서 해항은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고 매음과 율락이 난무하는 곳으로 그려진다. 그리하여 고향을 버리고, 새로운 기대를 안고 찾아간 도시의 모습에 그는 절망하고 만다. 오장환은 결국 그곳에서도 자신의 입지를 마련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³⁹⁾

이러한 근대적 도시체험의 실망과 함께 1930년대의 지식인들에게 국가 상실감은 자연히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옮겨간다. 그러나 고향의 현실은 식민지 상황으로 인해 피폐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과거의 훼손되기 이전의 고향은 이미 사라지고 돌아 갈 수 없으며, 그 속에서 식민지 현실은 처절하게 인식된다. 그러나 오장환은 이러한 현실 인식에서 그치지 않고 ‘고향’을 개인의 지향 공간이 아닌 공동체의 화해 공간으로 그려내고 있다. 여기서는 오장환 시에서 드러나고 있는 식민지 현실에서의 고향에 대한 인식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오장환의 ‘고향은’ 대부분의 시편에서 그리움의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다. 고향을 떠나 체험한 근대의 도시체험으로부터 온 실망은 그로 하여금 고향을 그리게 만든다. 이는 해항과 부두의 시편들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39) 김학동, 『오장환 평전』, 새문사, 2004, pp. 95~101.

어메야! 온-世上 그 많은 물건 中에서 단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어메! 只今の 내가 있는 곳은 廣東人이 살고 다니는 충충한 密航船. 검고 비린 바다 위에 휘이-한 角燈이 비치울 때면, 나는 함부루 술과 싸움과 賭博을 하다가 어메가 그리워 어둑어둑한 埠頭로 나오기도 하였다. 어메여! 아는가 어두운 밤에 埠頭를 헤매이는 사람들. 암말도 앓고 故郷, 故郷을 그리우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모-다 깊은 傷處를 숨겨가지고 ……떨엄, 떨엄 이, 헤어져 있는 사람들.

암말도 앓고 검은 그림자만 거니는 사람아! 서 있는 사람아! 너가 옛땅을 그리워하는 것도, 내가 어메를 못 잊는 것도, 다 - 마찬가지로 제 몸이 외로우니까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어메야! 五六年이 넘두락 一字消息이 없는 이 不孝한 子息의 편지를 너는 무슨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냐. 나는 툼툼이 생각해 본다. 너의 눈물을……오- 어메는 무엇이었느냐! 너의 눈물은 몇 차례나 나의 不平和 決心을 죽여버렸고, 우는 듯, 웃는 듯, 나타나는 너의 幻想에 나는 只今까지도 설운 마음을 끊이지는 못하여 왔다. 便紙라는 서로이 서러움을 하소하는 風習이려니, 어메는 行方도 모르는 子息의 安在를 믿음이 좋다.

- 「鄉愁」 일부, 『城壁』

위의 시에서 시적 화자는 어두운 바다 위에 위태롭게 있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어머니라는 대상을 향해 하소연을 하고 있다. 자신의 방탕한 삶의 단적인 모습은 ‘나는 함부로 술과 싸움과 賭博을 하다가 어메가 그리워 어둑어둑한 埠頭로 나오기도 하였다.’에서 드러난다. ‘술’과 ‘싸움’, ‘도박’의 유희와 폭력이라는 굴레를 빠져나오게 하는 것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다.

그 그리움은 부두를 해매고 있는 유랑민들의 상처에 시선이 머문다. 그들의 내면의 상처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에서 비롯된다. 방황하는 시적자아는 이들의 모습에서 동질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너의 눈물은 몇 차례나 나의 不平과 決心을 죽여버렸고’라며 시적 화자의 절망적인 삶을 어머니의 사랑이 지탱해 주고 있다고 토로한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 과정 안에서 화자는 자신의 삶을 회고한다. 회의적인 삶에서의 절망과 부정적 인식은 타향살이에서 느끼는 고독과 식민지 현실에서의 고통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黃昏」에서도 기억 속의 고향은 “아릿다운 기억”의 공간이며 정든 풍경으로 그리움의 대상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고향에 대한 회고는 당시 일제가 내놓았던 강제 이주정책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농민들의 모습으로 구체화된다.

눈덮힌 鐵路는 더욱이 싸늘하였다
 소반 귀퉁이 옆에 앉은 農군에게서는 송아지의 냄새가 난다
 힘없이 우스면서 車만 타면 北으로 간다고

어린애는 운다 철마구리 울듯
 車窓이 고향을 지워버린다
 어린애가 유리窓을 쥐어뜯으며 몸부림친다.

- 「北方의 길」 전문, 『獻詞』

일제의 가혹한 수탈정책으로 인해 양산된 유랑민들은 만주와 시베리아 등 북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또한 여기에는 일제가 농민들을 ‘소작인화’하려 했던 의도가 있었다.⁴⁰⁾ 지주에서 소작인으로 전락한 농민들은 나라 잃은 설움

40) 성기각, 『한국 농민사와 현실 인식』, 국학자료원, 2002, pp. 338~339.

을 땅을 잃는 고통에서 느끼게 된다. 이러한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農군”과 “송아지 냄새”는 고향을 그리게 하는 자극체가 된다. 억지로 떠나온 고향이었기에 그리움은 절실하게 드러나고, 어린애의 울음과 몸부림으로 형상화되는 것이다. 오장환은 이러한 억울하게 고향을 떠나간 농민들의 비극을 감정을 절제하며 객관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속에서 고향은 삶의 터전이자 그리운 공간이 되는 것이다.

반면에 고향은 피폐하고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그려져 식민지의 현실을 드러내는 공간으로 채색되기도 한다.

장판방엔 곰팡이가 木花송이 피듯 피어났고 이 방 主人은 막버리꾼.
지개목바리도 훈김이 서리어 올랐다. 방바닥도 녹진녹진하고 배창사도
녹진녹진하여 空腹은 헌겍오래기처럼 썩어져 나오고 와그르르 와그르
르 송얼거리어 뒤스간 문턱을 드나들다 고이를 적셨다.

- 「雨期」 전문, 『城壁』

추라한 지붕 씩어가는 추녀 우엔 박 한 통이 쇠었다.

밤서리 차게 내려앉은 밤 싱싱하던 넝쿨이 사그러붙든 밤. 지붕밑
양주는 밤새워 싸웠다.

박이 탄탄이 굳고 나뭇잎새 우수수 떨어지던 날, 양주는 새박아지
꾸여들고 추라한 지붕, 씩어가는 추녀가 덮인 움막을 작별하였다.

- 「暮村」 전문, 『城壁』

「雨期」에서 “장판방엔곰팡이가 木花송이” 피고, “방바닥도 녹진녹진”한 공간의 주인은 “막버리꾼”, 즉 서민이다. 습기가 올라오는 방안 풍경에 대한 시적 화자의 시선은 방주인의 굶주림으로 옮겨간다. “방바닥도 녹진녹진”하고 “배창사도 녹진녹진”하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住)와 식

(食)조차 온전하지 못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暮村」에서도 “추라한 지붕”과 “씩어가는 추녀”로 묘사되고 있는 움집의 모습에서 힘겨운 민중의 삶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양주(兩主:부부)에겐 박 하나가 재산의 전부이다. 빈곤한 삶은 “밤서리가 차게 내려앉은 밤”으로 상징되고, 부부는 밤새워 싸움을 한다. 부부 싸움의 원인이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나, 힘겨운 삶에 지친 다툼 정도로 보인다. 시간이 흘러 “나뭇잎새”가 떨어지는 가을의 끝자락에서 결국 부부는 박으로 만든 바가지 하나 들고 집을 떠난다. 두 작품에서 관찰된 민중의 생활 모습은 열악하고, 절망적이다. 그 모습을 오장환은 담담하게 그리고 있으며, 이는 식민지 현실에서 본 고향의 현실이었다. 일제에 의해 위협받고 힘겨운 것은 민중의 생활뿐만이 아니라 초토화된 고향도 마찬가지였다.

가도, 가도 붉은 산이다.
가도 가도 고향뿐이다.
이따금 솔나무 숲이 있으나
그것은
내 나이같이 어리고나.
가도 가도 붉은 산이다.
가도 가도 고향뿐이다.

- 「붉은山」 전문, 『나 사는 곳』

식민 시대의 고향은 위와 같이 초토화된 강산의 현실로 다가온다. 가도 가도 보이는 것은 수탈당한 모습의 황폐한 붉은 산이며, 가도 가도 그것이 고향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인은 이따금 보이는 소나무도 일제에 의해 공출당해 겨우 남은 것이라고는 ‘내 나이같이 어린’ 나무뿐이라는 탄식

을 뺏어낸다. 여기서 수탈의 대상은 단순히 조국의 강토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민중으로 상징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우리 민족의 수난의 현실을 7행의 단형으로 절실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오장환의 시중에서도 손꼽히는 명시이라 평가받는다. 이처럼 고향은 식민지배 속에서 비정한 현실로 그려지고, 과거의 회상 속에 존재하는 이상적인 공간으로 표백되기도 한다.

흙이 풀리는 내음새
江 바람은
산짐승의 우는 소릴 불러
다 녹지 않은 얼음짙 울멍울멍 떠나려간다.

진중일
나루스가에 서성거리다
行人의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

고향 가차운 주막에 들러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라.
양구비 끓여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지운다.

간간이 잿내비 우는 산기슭에는
아즉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설레이는 바람이 가랑잎을 휩쓸어 간다.

예 제로 떠도는 장꾼들이여!

상고(商賈)하며 오가는 길에
혹어나 보셨나이까.

전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띄우는 소리, 누룩이 뜨는 내음새……

- 「고향 앞에서」 전문, 『나 사는 곳』

위의 시는 유일하게 교과서에 다뤄지고 있는 오장환의 시로,⁴¹⁾ 여기서 고향은 개인적인 과거 회상 속에 존재하는 고향으로 현실과 대비되어 나타난다. 과거 회상의 공간으로서 고향은 “흙이 풀리는 내음새”, “江 바람”, “전나무 우거진 마을”, “누룩이 뜨는 내음새” 등의 시구를 통해 평화롭고 정겨운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고향은 「붉은 산」에서처럼 황폐화된 모습이다. 시의 전반에 드러나는 정겨운 분위기에 깔린 비애는 여기서 비롯된다. 시에서는 황폐화된 고향의 모습이 직접적으로 묘사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차마 고향에 발을 들여 놓지 못하는 시적 화자의 모습을 통해 예전과 다르게 변한 고향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 시에서 화자는 관조자로서 고향을 바라보고 그리워하며 서러워한다. 이는 시의 제목이 ‘고향’이나 ‘고향에서’가 아닌, ‘고향 앞에서’이기에 더욱 선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운 옛 고향은 이미 일제의 식민지 정책으로 인해 망가지고, 정겨웠던 고향 사람들조차 남아 있지 않다. 그렇기에 변해버린 고향 마을로 차마 발길을 옮기지 못하고 시적 화자는 나루터에서 서성이며, 행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는 시적 화자는 “고향 가차운 주막”에 들러 노인과 함께 옛 고향을 이야기하며

41) 오장환의 「고향 앞에서」 전문이 두 출판사에 실려 있다. - 김병국 외, 『문학(상)』, (주)케이스, 2004, p.142. / 오세영 외, 『문학(하)』, 대한교과서, 2002, p. 219.

눈물짓는다. 화자는 옛 고향의 모습을 장꾼들에게 혹여나 보았는지 묻고 있다. 이는 물음이라기보다 영탄에 가까운 어조로, 식민지가 되기 이전의 평화롭던 공간에 대한 깊은 그리움의 표출인 것이다.

이상의 시작품들을 통해서 오장환 시에서의 ‘고향’이 전원적인 공간으로 그리움만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다양하게 변모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고향’은 식민지 현실에서 그리워 할 수밖에 없었던 상실된 국가로 나타나며, 또한 식민지배 이전의 원형적 이미지로서의 공간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과거 평온한 고향의 모습은 식민지 현실과 대비되어 더욱 참담한 현실을 나타내며, 회귀하고 싶은 공간으로 표상된다.

오장환의 시속에서 변모되는 다양한 고향에 대한 인식은 당시의 식민지의 불안정한 정체성과 맞물려 그리움의 공간이자, 식민지 현실을 드러내는 공간, 과거 회귀의 공간, 드러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인식은 ‘노래’를 통하여 공동체의 민족정신으로 드러난다.

3. 민족정신의 발현

오장환은 ‘노래’의 세계를 추구함으로써 민족정신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의 시편들 중에서 “~노래”란 제목이 바로 그것이다. 아래의 표에 제시된 네 권의 시집에서 “~노래”란 제목은 총 13편이며, 이밖에도 시집에 미수록된 작품들⁴²⁾까지 살펴보면 6작품이 추가되어 총 19작품이다.

42) 시집에 실리지 않은 작품에서 ‘노래’를 제목으로 하는 시는 「船夫의 노래1」, 「船夫의 노래」, 「小夜の 노래」, 「歸郷의 노래」, 「二月의 노래」, 「찬가」가 있다.

시 집	『城壁』	『獻詞』	『나 사는 곳』	『病든 서울』
작 품 제 목	없 음	「나의 노래」 「不吉한 노래」	「조봄의 노래」 「밤의 노래」 「구름과 눈물의 노래」 「絶頂의 노래」 「길손의 노래」 「노래」 「山峽의 노래」 「봄노래」	「八月 十五日의 노래」 「聯合軍入城歡迎 의 노래」 「어둔 밤의 노래」

<“~노래”라고 붙여진 시 제목>

이밖에도 오장환의 시 전반에 걸쳐 ‘노래’라는 시어를 빈번히 사용하고 있다. 이는 오장환이 시를 노래라고 여기며 이를 지향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노래에 대한 오장환의 의식은 그가 지향했던 시 정신에서도 드러난다.

배낭에 지워준 비통한 숙명으로 인하여 지나온 길가에 핏방울을 떨어뜨리고 온 젊은이들은 다 각기 가슴속에 눈물을 숨기고 앞으로 어떠한 노래를 어떠한 방식으로 불러야 할까.⁴³⁾

“앞으로 어떠한 노래를 어떠한 방식으로 불러야 할까”에서의 ‘노래’는 그들이 지향해야할 정신세계이다. 식민지의 현실에서 그들이 불러야 할 노래란 역사를 울곧이 바라보고 자신의 신념의 세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속에서 노래를 통한 자아에 대한 인식은 다음의 시에서 죽음에 대한 의식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나의 노래가 끝나는 날은

43) 오장환, 「방황하는 시정신」, 김학동, 앞의 책, pp. 602~603.

내 가슴에 아름다운 꽃이 피리라.

새로운 墓에는
옛 흙이 향그러

단 한번
나는 울지도 않았다.

... 중략 ...

슬피 바래는 마음만이
그를 좇아
내 노래는 벗과 함께 늦끼엿노라.

나의 노래가 끝나는 날은
내 무덤에 아름다운 꽃이 피리라.

- 「나의 노래」 일부

내 노래가 끝나는 날에 가슴과 무덤에 아름다운 꽃이 필 것이라는 위의 노래는 오장환의 죽음에 대한 의식을 형상화한 작품 중의 하나로 손꼽힌다.⁴⁴⁾ 여기서 노래는 시적 화자의 삶이며 그것이 끝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즉, 죽음은 식민지배 시기에 느꼈던 절망감과 부정적 의식의 표출로써 드러나는 노래였다. 이러한 식민지배 시기의 시인의 절망은 다시 민족의 수난과 박해를 고발하는 노래로 오롯이 드러나게 된다.

44) 김학동, 『오장환 연구』, 시문학사, 1990, pp. 55~56.

우리의 노래는 오래인 동안 민족의 수난과 박해에 대하여 노래하였다. 우리나라의 고운 창공과 아름다운 산들과 깊은 골짜기들은 어느 곳에나 슬픔의 노래로 가득하였다. 나는 그 가운데서도 남달리 큰 소리로 울었다. … … 나는 어렸을 때부터 시인이었기 때문에 또 우리를 위하여 노래하고 간 여러 시인들의 노래를 통하여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일제가 우리의 원수이었던 것을 누구 모르랴? … … 우리의 노래는 무엇 때문에 울고 나의 노래는 또한 누구를 위하여 울었느냐? 이러한 이를 기다려 울었고 이러한 이를 사모하여 운것이 아니냐?⁴⁵⁾

우리를 위하여 부른 여러 시인들의 노래는 ‘시’이며, ‘민족의 목소리’다. 시인들은 일제의 식민지배 현실을 끊임없이 시를 통해 드러냈다. 이미 빼앗긴 조국에서 태어난 오장환은 그들의 시를 접하면서 ‘나의 노래’라는 자신만의 울음으로 식민지 현실을 고발한다.

그 노래로 형상화 되는 세계는 오장환이 식민지 현실에서 지향했던 노래의 세계로 드러나기도 한다. 노래를 부를 수 없었던 그 시절에 시인은 민족 전체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노래의 세계’를 꿈꾼다. 여기서의 노래는 나의 희구가 이루어지는 지점의 희열을 대변한다. 즉 민족정신이 오롯하게 살아 숨 쉬는 그날의 희구인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해방의 날에 시적 자아가 희구하던 ‘노래의 세계’가 만세 소리와 함께 격정적 기쁨으로 드러난다.

“萬歲”!를 부른다. 목청이 터지도록
지쳐 나서는
군중은 만세를 부른다.

우리는 노래가 없었다.

45) 오장환, 「시적 영감의 원천인 박현영 선생」, 김학동, 위의 책, pp. 716~717.

그래서
이처럼 부르짖는 아우성은
일찍이 끊어오든 우리들 정열이 부르는 소리다.

아 손에 손에 기빨들을 날리며
큰길로 모이는 사람아

우리는 보았다
이곳에 그냥 기쁨에 醉하고, 함성에 목메인 겨레를……

그리고
뒤끓는 歡喜와 깃발의 꽃바다 속에
무수히 따라가는 아동과 근로하는 이들의 行
列을……

춤추는 기빨이어!
나부끼는 마음이어!
이들을 지키라.

- 「八月 十五日의 노래」 일부

위의 시는 해방직후에 쓰인 해방의 기쁨에 취해 부르는 축가이다. 이러한 격정적인 기쁨은 “함성에 목메인 겨레”를 통해 형상화 되고 있다. 그 기쁨 속에는 지난날 노래를 가질 수 없었던 식민지 현실에 대한 회고가 “우리는 노래가 없었다”로 드러난다. 노래가 없었다는 것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국가가 없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뜨거운 만세는 노래가 되고, 그가 지향했던 ‘노래의 세계’가 마침내 실현되는 것이다. 진정한 노래 찾기를 통해 맞본 환희는 “춤추는 기쁨이여/ 나부끼는 마음이어”등의 영탄의 어조로 드러남으로써 기쁨을 고조시킨다. 다음에 이어 노래는 구체적으로 민족공동체 의식을 드러낸다.

몰래 쉬던 숨을 크게 쉬니
가슴이, 가슴이, 자꾸만 커진다
아 동편바다 원-끝의 大陸에서 오는 벗이어!
이 半球의 서편 맨-끝에서 오는 同志어!
... 중 략 ...
아 즐거운 마음은 이 가슴에서 저 가슴으로
종소리 모양 울러나갈 때
이 땅에 처음으로 발을 디디는 聯合軍이어!
正義는, 아 正義는 아즉도 우리들의 同志로구나

- 「聯合軍入城 歡迎의 노래」 일부

내가 부르는 노래
어테선가 그대도 듣는다면은
나와 함께 노래하리라.
「아 우리는 얼마나
기다렸는가」……하고
... 중 략 ...
내가 부르는 노래
어테선가 그대가 듣는다면은
나와 함께 노래하리라.
「아 우리는 얼마나

기다렸는가」……하고

- 「초봄의 노래」 일부

「聯合軍入城 歡迎의 노래」는 일제를 패망으로 몰아넣은 연합군의 입성을 반기는 민족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작품이다. 여기에는 어떠한 이념의 차이나 대립과 갈등도 보이지 않는다. 광복 5일 후에 쓴 시로 이는 민족공동체의식이 배태되기 시작하던 시기의 작품으로 평가받는다.⁴⁶⁾ 이어지는 「초봄의 노래」에서도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광복의 노래가 ‘우리’라는 민족 전체의 기쁨으로 드러나고 있다.

반면 뒤이어 발표된 작품에서는 해방공간의 현실을 기쁨이 아닌 민족에게 남겨진 상처로 그려내고 있다.

碑石은 맑은 이슬에 축축히 젖어 있었다. 나의 눈물을 끝없이 더듬어 새벽안개 자욱한 산길을 가면, 거기 온갖 꽃피는 잔디우에 무덤은 봉긋봉긋 솟아나온다. -주소로 江물이 흘러가는 洞口 앞- 이것이 共同墓地다. 數없는 고향 사람이나 낯선 行旅病者의 잠자는 追憶이……

나의 뉘우침에 거짓이 없다면 정년 이것은 卒業式이다. 그와 같은 우름이었다. 행낭 뒷거리마다 껌 파는 쉬영딸, 쉬영딸의 붉은 볼. 슬푸디 슬픈 초밤 하늘이어! 안개 자욱한 이슬비 젖는 굳이 닫혀진 公園의 쇠문 앞에서 모다 한결같어라. 아 끝없는 忘却의 하늘, 거기 주소로 江물이 흘러가는 洞口앞. 이것이 외저운 무덤사 가이다. 철기따러 적은 나비 찾아오는 적은 꽃 피는……

- 「봄노래」 전문, 『나 사는 곳』

46) 김학동(1990), 앞의 책, pp. 85~86.

위의 시는 해방의 기쁨을 노래한 위의 시와는 대조적으로 무겁고 어둡다. 해방 후에 마주한 현실에는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일제의 식민지배로 희생된 동족의 모습은 ‘공동묘지’나 ‘행려병자의 잠자는 추억’이라는 시구를 통해 비극적인 현실로 드러난다. 그것은 해방에 대한 기쁨으로도 씻을 수 없는 민족의 상흔이었다. 상처투성이인 조국과 민중들까지 아우르는 시선은 지식인으로서 책임의식이자 그의 민족정신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오장환 시는 노래이고, 그 노래를 통해 열망한 세계는 민족의 해방을 의미한다. 따라서 힘겹게 맞이한 해방은 민족 공동체의 기쁨에 넘치는 노래로 표출된다. 그러나 그 기쁨 안에서 그는 상처받은 민중의 모습으로 시선을 돌린다. 해방이 되어 나라를 찾았지만, 민중의 생활상은 일제 강점기와 별다를 게 없이 참담했고, 그로 인해 그는 좌절한다. 이는 오장환이 월북이라는 좌경의 노선을 선택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그것은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열망에 대한 혁명의 노래⁴⁷⁾로 나타났던 것이다.

지금까지 오장환 시에서 드러나는 현실 인식의 양상을 세 개의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오장환의 서출이라는 신분은 시에서 자기부정으로 나타나고 전통에 대한 거부의를 통한 자아성찰로 드러난다. 다음으로 고향이라는 주제를 통해 오장환의 식민지 현실 인식을 살폈고, 그것이 마지막으로 노래세계 지향을 통한 민족정신의 발현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 인식의 주제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오장환 시교육 방법을 살펴보려고 한다.

47) 여기서는 거론하지 않았지만 시집 『붉은기』에 「붉은기」나 「스탈린께 드리는 노래」 등과 같은 작품에서 ‘노래’가 좌경적 이념과 함께 혁명적인 색채가 묻어 나온다.

Ⅲ. 오장환 시의 교수 방법

최근 시교육에서 지향하고 있는 관점은 텍스트 중심의 시교육에서 학습자(독자) 중심의 시교육으로 또 상황 중심의 시교육으로까지 옮겨왔다. 텍스트 중심의 시교육은 형식적 지향의 문학이론으로 텍스트 자체를 강조하고, 구조의 발견과 해석에 중점을 둔다. 반면 작품의 외적인 요소인 역사성의 결여로 인하여 해석상의 불완전함이 보이게 되었다. 이를 비판하고 나온 것이 학습자(독자) 중심의 시교육과 상황 중심의 시교육이다. 학습자중심의 관점은 학습자가 의미를 형성해 가는 인지적 측면에 중점을 둔 것이다. 학습자 개인이 주도적으로 의미를 구성하게 하고, 이를 통해 시 해석의 개방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개인적 시해석의 개방화는 무한정한 발상으로까지 이어져 문제를 야기했다. 또한 학습자 중심의 개인적 활동에 매달린 나머지 사회적 상황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에 새롭게 대두된 것이 상황 중심의 시교육이다. 이는 사회적 관점의 시교육으로, 사회적 상황과 관련 텍스트 해석을 중시한다. 학생들 각자가 속해 있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역사적 배경 등에 따라 텍스트 해석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학습자는 다양한 층위의 구조를 형성하고, 그 작품을 이해하고 해석하여 시인과 소통한다. 작품에 대한 개인적인 이해는 다시 동료 학습자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보다 넓은 의미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⁴⁸⁾ 이는 문학 작품을 상황적 관점으로 학습하면서 학습자가 문학과 자신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관점의 변화에서 주목할 면은 학습자 개인이 속한 사회, 문화적 상황에서의 시 텍스트의 의미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습자가

48) 차호일, 「시교육의 관점 변화 및 지향점」, 『청람어문교육 30집』, 2004, pp. 429~447.

일반적으로 작품과 작가의 의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 스스로 작품의 의미를 찾고,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텍스트가 소통되는 상황에 초점을 두어 텍스트 자체가 갖는 본래 의미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자의 상황과 같은 상황 속에 학습자를 두거나, 저자가 어떤 상황에서 작품을 썼는지를 살펴보는 등의 작품에 대한 의미를 찾는 학습 활동도 병행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를 토대로 시교육의 상황적 관점을 적절히 반영하여 오장환 시교육의 교수방법을 ‘현실 인식의 주제’와 관련지어 모색해 보고자 한다. 그전에 현행 문학교과서에서 수록된 작품을 알아보고 단원의 내용과 학습 활동이 어떻게 전개되고 교수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교과서 수록 작품과 문제점

1.1. 수록된 단원

현행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18종 문학 교과서에서 오장환 시는 2종, 1작품이 실려 있다. 수록작품은 「고향 앞에서」로 케이스 출판사의 『문학(상)』과 대한교과서의 『문학(하)』에(이하 출판사 명으로 약칭한다) 수록되어 있다.⁴⁹⁾ 오장환 시가 수록된 단원명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9) 김병국 외, 앞의 책, p. 142.
오세영 외, 앞의 책, p. 219.

출판사 단원	케이스	대한교과서
대 단 원	Ⅲ. 문학의 수용과 창작(2) - 갈래에 따른 수용과 창작	V.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
중 단 원	1. 서정의 세계	2-6. 일제 강점기의 문학
소 단 원	4. 이미지와 표현 (2) 정지용의 「향수(鄉愁)」	(4) 토막
학습 활동	확장하기	수용과 내면화

<출판사별 오장환 시의 단원 분류>

각 출판사에서 오장환의 시는 각각 케이스와 대한교과서에서 “이미지와 표현”과 “일제 강점기의 문학”이라는 주제 아래 다뤄지고 있다. 케이스에서는 본문내용을 ‘이해하기’와 ‘확장하기’라는 단계로 나누어 살피고 있는데, 정지용의 「향수(鄉愁)」의 확장하기 2번으로 오장환의 시를 싣고 있다.

반면 대한교과서에서는 유치진의 희곡 작품, 「토막(土幕)」의 등장인물의 심정을 이해하기 위한 보충자료로 쓰이고 있다. 여기서는 ‘수용과 내면화’ 단계라는 이름으로 작품의 학습 활동을 제시하고 있는데, 오장환의 시는 ‘3번’ 시 창작의 예시 작품으로 제시되고 있다.

교사용 지도서에서 시작품은 보통 3차시 분량으로 나누어 교수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 수업에서는 1차시에서 2차시 정도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등학교의 수업 시간이 50분이라고 할 때 본문에 실린 작품에 대한 학습을 마치기도 어렵다. 더욱이 학습 활동 차원으로 간략하게 제시된 오장환의 「고향 앞에서」까지 제대로 감상하고 분석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1.2. 학습 활동의 내용

오장환의 「고향앞에서」는 상호텍스트성의 교수전략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는 상호 관련된 텍스트를 통하여 풍부한 의미와 문학적 체험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따라서 교과서에서 상호 관련 텍스트로 제시된 오장환의 시는 본문텍스트의 내용과 학습 활동 분석이 선행되어야 이해될 수 있다.

케이스에 수록된 정지용의 「향수」는 1927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자아의 회상 속에 남아 있는 원형적이고 전형적인 고향으로 나타난다.⁵⁰⁾ 유년시절의 고향은 순수하고 때 묻지 않은 자연 환경과 함께 아버지나 어린 누이, 아내의 모습 또한 정겨운 농촌의 풍경으로 그려진다. 특히 고향의 모습을 회화적으로 그리고 있어 향토의 정감과 서정성이 뛰어난 작품으로 인정받는다. 이러한 이미지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하여 학습 활동 2번 문항으로 두 가지 학습 활동의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 (1) 두 작품에 나타난 고향 이미지가 어떤 점에서 다른지 말해보자.
- (2) 두 작품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고향에 대한 인식이 어떤 점에서 다른지 토론해 보자

케이스의 (1)번 항목은 「향수」와 「고향 앞에서」의 공통된 소재인 ‘고향’이 어떤 차이를 지니며 형상화 되었는지를 묻고 있다. 「향수」의 고향은 평화롭고 아늑하며, 시대를 초월하여 누구에게든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원형적인 고향의 모습인 반면에 「고향 앞에서」의 고향은 시대적 현실 속에 실재하는 황량하고 슬픈 고향의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다. (2)번에서는 고향

50) 이원규(2004), 앞의 글, pp. 28~32.

에 대한 인식 즉 시적 화자의 목소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토론을 통하여 학습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향수」에서의 고향은 편안한 휴식처로 인식한 반면에, 「고향 앞에서」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답은 「고향 앞에서」에 대한 충분한 해독을 하였을 때 가능한 것이다. 오장환 시인에 대한 설명과 창작 배경에 대한 설명 없이는 이런 해석은 불가능 하며, 또한 이러한 설명이 ‘날개’ 형태로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다.

한편, 대한교과서에서는 유치진의 희곡 「토막」의 2막의 내용 일부를 본문으로 실고 있다. 「토막」은 1920년대의 조선의 농촌을 배경으로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현실이 초래한 비극적 삶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토막」은 식민지적 수탈을 이기지 못하고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과 돈을 벌기 위해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이는 비극적 민족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인정받는다. 작품의 ‘수용과 내면화’로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작가의 의도를 묻는 학습 활동이 제시되고 있다. 오장환의 「고향 앞에서」는 ‘창조적 재구성’ 단계에서의 학습 활동 3번으로 제시된다.

이 작품에는 가난 때문에 고향을 버린 ‘순돌네’의 이야기가 나온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순돌네의 입장이 되어 떠난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를 창작해 보자.

이는 비슷한 주제를 그리고 있는 오장환의 시를 모범적인 예시로 들고 있는 것으로, 상호텍스트성 차원에서 이해된다. 여기서는 교과서의 우측 하단부에 위치한 날개에는 시에 대한 간단한 설명⁵¹⁾이 있어 시에 대한 이해를

51) “고향을 버린 자의 상실감과 애환을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여 비극적이면서도 애잔하고 쓸쓸하게 그

돕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시 창작을 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취급받기 때문에 시에 대한 감상과 이해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이상과 같이 2종의 문학 교과서 모두 오장환 시를 ‘식민지 현실 인식’을 잘 형상화한 작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과 달리 학습 활동의 내용을 통해 ‘현실 인식’을 충분히 이해하기란 어렵다. 또한 다른 작품과 상호텍스트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볼 수 있을 뿐, 오장환의 시 자체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에 오장환 시의 현실 인식을 문학교육에서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교수법을 모색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2. 오장환 시 주제와 교수법

시 텍스트를 교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 텍스트가 내장하고 있는 주제라든지 경험의 유형을 학습자에 맞추어 시를 내면화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⁵²⁾ 따라서 오장환 시세계를 교수하는 방법도 보편화된 교수법보다는 텍스트의 특수성에 맞추어 교수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그 교수 방법에 있어 현실의 교육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인 요소로, 제7차 ‘문학’ 과목의 ‘4. 방법’항 중에서 구체적인 교수·학습 원리에 대한 항목⁵³⁾은 네 가지로 다음과 같다.

마. 작품은 고정된 전범이 아니라 학습자의 다양한 문학 활동을 위해 변용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리고 있는 작품이다. 작가가 느끼는 정신적 상실감이 당시의 시대적 현실과 결부되어 고향이 있어도 갈 수 없는 화자의 쓸쓸한 모습이 선연하게 떠오른다.” - 오세영 외, 앞의 책, p. 219.

52) 유성호, 『현대시 교육론』, 역락, 2006, p. 24~25.

53)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② 국어』, 교육인적자원부, 2001, pp. 319~324.

바. 작품의 수용 활동은 강의, 강독에 치우치지 말고, 발표, 토의, 토론, 협동 학습, 현장 학습, 감상문과 비평문 쓰기 등 다양한 방식을 적절히 활용하여 지도한다.

사. 작품의 창작 활동은 처음부터 높은 수준을 요구 하지 말고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개작, 모작, 생활 서정의 표현과 서사문 쓰기 등의 단계를 거치되, 자신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지어 지도한다. 특히, 모든 학습자에게 전문적인 문예 작품 창작 활동을 지나치게 강조 하지 않는다.

아. 문학 활동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포함한 언어 활동 및 다양한 비언어적 표현, 이해 활동과 통합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마’에서는 교과서에 실린 ‘제재’를 배우는 것보다 ‘제재를 자료로 하여’ 교육 내용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열린 교재관’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재를 바탕으로 ‘바’는 학습자가 수업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문학에서 지향하는 창작 활동에 대한 언급은 ‘사’에서 보인다. 수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작 활동을 통해 총체적인 문학 활동으로 이끌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삶에 관련되는 주제와 소재를 다루도록 권장한다. 마지막으로 ‘아’는 다양한 매체와의 통합적인 교육의 도입을 권장한다.

이를 토대로 여기서는 시세계의 교육방법으로 “가족사를 시로 창작하기”와 작품의 수용활동으로서의 “상호 협동 학습”과 “토론 학습”을 통한 교수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1. 가족사를 시로 창작하기

오장환의 시에서 어머니는 빈번하게 등장하며, 이에 반해 아버지와 관련된 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는 그의 개인적인 가족사와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의 서출 신분과 할아버지 별 나이의 아버지의 존재는 그의 시속에서 어머니에 대한 연민으로 형상화되었던 것이다. 오장환의 어머니에 대한 애정은 남다른 바가 있었다고 한다. 처음에 아버지의 첩실로 들어와 5남매를 낳고 큰어머니의 사망으로 적실이 되긴 했으나, 그래도 마음속에 그런 감정이 앙금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와 일찍 사별하고 홀로 되어 줄곧 시골에 살면서 농사일만 하다가 늙으신 어머니를 그는 몹시 안타까워했다고 한다.⁵⁴⁾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현실 인식이 나타나는 시가 바로 「다시 美堂里」이다. 이러한 시인의 가족사는 시를 이해하고 감상하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 오장환은 가족과의 관계인식을 통해 자아를 성찰하고, 혹은 자기를 부정하는 등의 내용을 통하여 시에서 끊임없이 자기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오장환 시에서 중심이 되는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이러한 주제를 학습자에게 내면화 시키는 학습 활동으로 시인의 가족사를 통해 시에 대한 이해와 함께 자신의 경험을 글로 옮기는 것⁵⁵⁾은 다양한 학습 기대효과를 가져온다. ‘가족사’라는 주제는 학습자가 1차적으로 속한 집단에 대한 사회관계를 통해 자아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54) 김학동, 『오장환 評傳』, 새문사, 2004, pp. 55~57

55) 권혁준은 이를 “창조적 읽기”라 하여, 시 읽기에서 머물지 않고 시를 내면화하여 다른 장르로 표현하는 단계라 설명하고 있다. 창조적 읽기의 단계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의 예를 총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시를 다른 장르로 바꿔 써보기- 시의 분위기와 내용, 시적 화자 상황 등을 살려 수필이나 편지글로 작성해 본다. 둘째, 비평텍스트 작성하기-독후감을 발전시켜 ‘비평가’가 되어 시에 대한 감상과 함께 평가해 본다. 셋째, 상호텍스트성을 확대하기-한 시인에만 치중하여 작품을 다루지 말고 주제와 연관된 다양한 작품을 다룬다. 넷째, 학습 독자가 직접 시 쓰기-창작을 경험함으로써 시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다. - 권혁준, 『문학이론과 시교육』, 박이정, 1997, pp. 253~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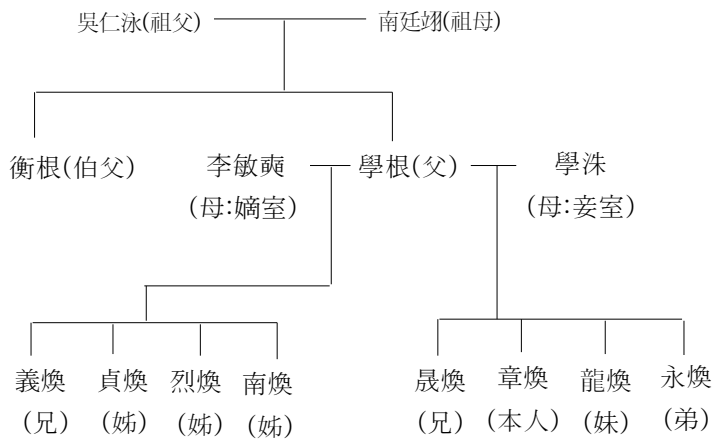
가족을 형상화한 작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 ‘가족과 자기인식’이라는 주제가 시와 같은 서정적 장르에서 어떻게 형상화 되는지 학습할 수 있다.

가족사를 작성하는 방법은 <주제잡기>→<이야기 구성하기>→<의미 찾기>의 순서로 진행한다.⁵⁶⁾ <주제잡기> 단계에서는 가족 간의 갈등이나 분쟁과 관련한 사건, 혹은 자기 가족의 특별한 가풍이나 내력 등을 주제로 잡아 본다. 이전에 오장환의 시 작품과 가족사 이야기를 설명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다.

이를 바탕으로 <이야기 구성하기>단계에서는 가계도 작성, 가족신문 만들기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가족사를 작성할 수 있다. 그 예로, ‘가계도 작성’은 가족의 구성원과 관계를 표로 만들고, 이와 관련한 가족의 이야기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가계도’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서 이어져 ‘나’까지 내려오는 3대의 관계를 채워 넣게 한다. 이 과정에서 가족의 경제적 상황과 함께 시대의 흐름 속의 역사적 사건 등도 관련지어 넣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때 모델이 되는 것이 오장환의 가계도⁵⁷⁾와 그와 관련한 작품이

56) “충남역사교사모임”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족사 작성요령’을 참고 하였음.

57) 아버지의 본처인 이민석이 1929년 사망하고, 첩실이던 오장환의 생모가 재혼신고 되었다. 그 이후에 오장환이 적자로 재신고 된 것이다. 오장환의 가계도는 다음과 같다. - 김학동(2004), 앞의 책, p. 28~30, 292.



다. 작품이 창작되게 된 가족사를 제시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상황을 통해 그의 작품을 이해하게 하는 활동 단계라 하겠다.

※ 가족사 작성의 예시

<가계도>

```

graph TD
    A(( )) --- B(( ))
    A --- C(( ))
    A --- D(( ))
    C --- E(( ))
  
```

<작성요령>

빈 칸에 위에서 부터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 아래에 “아버지와 어머니”, “고모와 고모부”, “삼촌” 등으로 가족의 가족 연표를 작성한다.

※ 가계도를 작성하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작성하여 보자.

- 1) 할머니와 어머니: 할머니는 일제시기와 6·25의 가난한 시절을 겪으셔서 항상 근 검·절약하신다. 반면에 어머니는 풍족했던 외가의 영향으로 씩씩이가 크신 편이다. 때문에 간혹 할머니와 어머니는 의견이 맞지 않으셔서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 2) 고모 이야기: 가족이 가난했던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고모의 희생이 있었다. 일제시기에 질병으로 한 쪽 다리를 다치신 할아버지는 일을 하실 수 없었고, 고모는 어린나이에 공장을 다니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다. 그리하여 아버지가 학업에 정진하실 수 있었고, 공부를 잘 하셨던 아버지가 후에 취직을 하시면서 집안 사정이 나아졌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의미 찾기> 단계에서는 가족사에서 나타는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영향이 가족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찾게 하고, 자신이 가족에 대해 생각하는 내용을 작성하게 한다.

작성한 학습자 개인의 가족사 이야기를 바탕으로 간단하게 시로 작성하는 시간을 갖는다. ‘가족사 쓰기’는 시를 창작하기 위한 연상법과 같은 작용을 하는데, 막연하게 주제를 제시하고 창작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으로 시창작 지도를 할 수 있다. 학습자가 시를 창작할 때 느끼는 1차적인 벽은

주어진 제재 혹은 자신이 생각하는 제재를 어떠한 내용으로 풀어 나갈 지에 대한 막막함에서 생긴다. 반면에 자신의 가족 이야기와 같은 친숙한 주변 현실을 드러내는 이야기는 손쉽게 쓸 수 있는 것이다. 오장환 시에는 그의 출생과 관련한 가족에 대한 심정이 드러나는 시편들이 많다. 이를 이용하여 가족사를 쓰는 훈련과 함께 시교육의 완전한 형태로 지향하는 시 창작으로 까지 연결하여 학습에 이용한다.

2.2 상호 협동 학습

오장환의 시에서 드러나는 가족에 대한 관계 인식은 그 범위를 확장시켜 다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에 대한 인식으로 드러난다. 식민지 현실은 고향에 대한 다양한 인식으로 드러나며, 1930년대 식민지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문제들이 그려지고 있다. 이는 오장환 시에서 드러나고 있는 중심적인 주제이자, 사회적 현실의 반영으로서 드러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오장환 시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은 넓게는 농촌과 도시로 그려지고, 다시 구체적인 지역에 한정하여 보면 서울이라는 지역인식이 있다. 오장환이 시집 『병든 서울』에는 해방된 공간의 서울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주제를 학습자의 상황과 연관시켜 저자의 상황과 같은 위치로 만들게 하는 방법으로 상호 협동 학습을 제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 방법으로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자료를 학습자간에 공유하고 이에 대한 결과물을 제출하게 하는 것이다. 학습자가 자신 이외의 사회 구성원과 함께 과제를 수행한다는 ‘학습 방법’과 이를 통해 획득하는 ‘학습 내용’의 통일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구체적인 학습 효과로는 학습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 대한 인식을 통하

여 자아를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학습자는 지역 주체로서의 현실을 명확하게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지역적 주체란 지역의 역사와 현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새로운 지역 현실을 창조하는 주체이다. 따라서 지역 문학교육은 ‘지역 문학 문화의 자양분을 받아 성장하는 주체, 지역 문학 문화의 전통성을 수호하는 주체, 지역 문학 문화를 창조하는’ 등의 형성에 교육적 목표가 있다. 또한 지역의 특수성을 인식함으로써 민족과 세계를 이해하는 인식의 확대 과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지역과 나의 관계인식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⁵⁸⁾ 이밖에도 지역사회 인식을 주제로 ‘상호 협동 학습’을 하여 기대할 수 있는 학습 효과는 지역에 대한 인식과 관심의 증대, 그리고 작품에 대한 이해의 확충이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조사를 통해 거주하는 지역만의 특수성을 학습하게 된다. 이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더 넓게는 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넓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의 자극으로 오장환의 시를 먼저 제시하여, 학습자는 상호 협동 학습을 통해 작품을 보다 넓고 포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상호 협동 학습은 다양한 교육 효과⁵⁹⁾ 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

58) 최승권, 「지역 문학의 교육 방법 연구-광주·전남 현대시를 중심으로」, 전남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5, p. 35.

59) 협동학습은 학습자들이 상호 의견 조율과 함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이해 및 협력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협동학습의 장점에 대하여서 변영계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학교에서 협동학습으로 행하는 과제가 사회에서 요청되는 과제들과 성격이 흡사하여 협동학습을 많이 한 경우 사회에 적응하거나 문제의 해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둘째, 혼자서 학습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것을 학습할 수 있다.

셋째, 혼자서는 시도하기 어렵다 싶은 일도 여럿이 해내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게 되어 주어진 과제에 대한 도전을 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기질, 성향, 태도 등이 개발된다.

넷째, 다른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학습 방법을 관찰하고 배울 기회가 주어진다.

다섯째, 학습자들은 동료로부터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여섯째, 무슨 일이든 서로 나누어 해결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람을 갖는 협력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인 학습 형태라 하겠다. 그 단계로는 <자료 설정>→<개별 탐구>→<상호 교수>→<정리>의 순서를 취한다.⁶⁰⁾ 학습자들은 먼저 사회와 문화적 여건의 변화를 시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수용하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가 어떠한 사회적 바탕 위에서 가능했는가를 각자 탐구하게 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 설정>의 단계에서는 두 가지를 제재로 하는데, 하나는 오장환의 시 텍스트⁶¹⁾이고, 다른 하나는 학습자가 조사해온 자료이다. 다매체의 시대의 시교육은 매체의 이해와 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왔다. 이에 대응하여 학습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료를 찾을 수 있게 지도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청⁶²⁾의 “문화관광” 메뉴에 ‘문화서울!’을 통하여 서울과 관련된 정보를 찾고 이를 프린트로 해오는 등의 활동을 설명한다. 이 홈페이지의 메뉴는 서울의 문화를 자연환경과 역사 등 다양한 측면으로 살피고 있어 좋은 학습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자료조사는 인터넷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자료를 준비하거나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준비해 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개별 탐구>의 과정에서는 학습자가 스스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지를 작성하게 한다. 협동 학습에서 학습지는 서로 토의나 협력한 내용의 결과물을 작성하는 것이므로 중요한 수업의 도구가 된다.

일곱째, 소집단 활동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며 나아가 타인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게 된다.

여덟째, 소집단 활동은 학습자들이 각기 자신의 자원(시간, 에너지, 능력, 성질)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 변영계 외, 『교육방법과 교육공학』, 학지사, 2000, p. 201.

60) 유성호, 앞의 책, p. 26.

61) 오장환의 시 중에서 「이 歲月도 헛되이」를 예시로 들 수 있다. 「이 歲月도 헛되이」에는 해방 후의 서울의 한 공간이 묘사되고 있다. 또한 당시의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관찰되어 나 타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 “내 나라의 심장 속// 내 나라의 수채물 구녕//이 서울 한복판에”에서는 그러한 도시에 대한 시인의 인식도 찾을 수 있다.

62) <http://www.seoul.go.kr> (서울시청 홈페이지 주소)

※ 학습지의 예시

<오장환과 서울, 내가 사는 지역>

1. 오장환 시, 「이 歲月도 헛되이」에서 서울은 어떤 모습인가?

- 1) 장소 : 서울 한복판
- 2)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 소시민, 여급, 중학생 등등
- 3) 사람들에 대한 묘사: 춤추는 연놈이나 술 마시는 것들, 장사길로 나간 소시민, 담뚝때기로 외투나 만또를 해입은 자 등등
- 4) 서울은 왜 그렇게 그려지고 있는가: 일제의 식민지를 벗어났지만, 오장환 시 속의 서울은 가난과 혼란이 난무한다. 서울을 내 나라의 심장부라 칭하며, ‘똥수간’이라고 비유하는 데에는 혼잡한 사회에 대한 시인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방된 공간에 대한 기대의 좌절에서 오는 실망감을 서울의 공간묘사로 나타내고 있다.

2.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어떤 모습인가?

- 1) 장소: --시(도) --구 --동
- 2) 사람들의 모습: 아침에는 출근하는 회사원과 등교하는 학생들로 바쁘고 분주한 모습이지만, 저녁에는 느긋하면서도 지쳐서 기운이 없어 보인다.
- 3)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특색: 내가 살고 있는 곳은 --구 --동인데, 불과 10년 전만해도 배가 열리는 과수원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모두 없어지고, 지금은 아파트와 함께 큰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생겨났다.

<상호 교수> 단계는 학습자들이 자신이 조사한 내용과 작성한 학습지 내용을 서로 이야기 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 단계이다. 이때 학습자들은 같은 학교 반경 이내에 거주하기 때문에 서로 토의한 내용을 통합하여 협력하여 모둠별로 시를 한 편 작성하게 한다. 그 이후에 모둠별로 발표를 한다. 이는 개인 활동→모둠 활동→전체 활동으로 연결되어 학습의 효과가 배가 되며, 타인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리> 단계에서는 모둠별 발표 내용에 대해 내용을 정리하

는 것으로 마친다. 상호 협력 학습은 학생중심의 교육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산발적이고 엉뚱한 방향으로 빠질 수 있는 오류를 교사가 내용 정리를 통하여 수정해준다.

2.3. 토론 학습

오장환시에서 드러나는 가족 인식과 사회인식은 더 넓게 민족 공동체 정신으로 발전하여 그의 시세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는 식민지 상황에서의 피폐한 민족의 모습을 노래로 드러내고 있고 이는 그의 시에서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의 ‘노래 세계’의 지향은 민족 공동체의 염원인 광복과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의 표출이었다. 이는 학습자에게 민족정신을 고양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가 끊임없이 열망하는 세계는 민족 공동체 모두가 열망하는 것이며, 이를 시를 통하여 읽어냄으로써 학습자는 은연중에 소속감을 느끼고 민족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오장환 시의 민족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는 교수방법으로 토론 학습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학습자에게 시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건이나 배경을 조사하게 한 후에 소집단으로 나누고 토론하게 하는 것이다. 토론은 집단 구성원들이 함께 생각하고 상호 의견을 조율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⁶³⁾ 토론하면 보통 찬반의 엇갈린 주장을 의사결정을 위해 함께 논의하는 방식만을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와 달리 공동의 관심사가 되는 어떤 문제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대화의 형태로 나누면서 해결 방안을 찾아 가는 것도 토론의 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의 후자의 토론 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학습 집단의 규모로 소집단 토론 학습을 선택하고자

63) 박민철, 「토론 학습을 통한 고등학교 국어 교수-학습 능력 신장 방안」,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p. 12.

한다. 소집단 토론은 개별 수업이 가능하며 개인차가 고려된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토론 학습은 <자료 제시>→<문제 공유>→<토론>→<정리 및 평가>의 순서를 취한다.⁶⁴⁾ 우선 토론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5~6명 정도가 한 소집단을 이루게 한다. 소집단은 이질적인 집단으로 편성하였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 하겠다. 구성원들이 서로 친밀한 관계로 구성되면 진지한 토론 학습에 방해가 되는 요소로 작용하거나 비슷한 사고(思考)로 인해 다양한 생각의 교환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료 제시>의 단계에서는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다. 여기서 제시되는 자료는 시 전문⁶⁵⁾과 함께 시가 생산되는 환경과 작품에 반영된 시대적 현실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들이어야 한다. 시 전문과 교사는 식민 지배와 해방을 겪은 사람들의 증언 자료와 사진을 제시하거나 조사해오게 한다. - **[참고자료1]**⁶⁶⁾

이를 토대로 <문제 공유> 단계에서는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토론의 '문제'를 제시-혹은 소집단 안에서 토론의 문제를 선정-해준다. 이후에 소집단끼리 개별적으로 조사해온 내용을 토대로 하여 모둠 안에서 간략히 조사를 하고 학습지를 작성하게 한다. 학습지에 조사해온 내용을 개별적으로 작성하고 이를 모둠끼리 토론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

64) 유성호, 앞의 책, p. 25.

65) 오장환의 시 중에서도 「병든 서울」은 8월 15일 광복의 순간을 그려 민족적인 기쁨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국가와 세계의 인식 학습에 좋은 학습재료가 된다. 시인이 광복의 기쁨만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식민지 시기의 처절했던 민족의 모습 또한 형상화되어 있어 해방의 양면성을 학습할 수 있다.

66) 두 번째로 제시하는 자료의 예로 해방공간의 증언 자료를 들 수 있다. 참고자료로 제시한 것은 KBS 광복 60주년 프로젝트팀이 '8·15의 기억-우리는 8·15를 어떻게 기억하는가(4부작)'를 제작하면서 채록한 구술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만든 책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 문제안 외, 『8·15의 기억』, 한길사, 2005, pp. 104~111, 204~213.

※ 「병든 서울」의 토론 과제 예시

- 1) 오장환 시 「병든 서울」에서의 “광복의 기쁨”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 시어를 찾아 그 논거를 마련한다.)
- 2) 걱정적인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시의 내용과 달리 시의 제목이 “병든 서울”인 까닭은 무엇인가? (자유롭게 시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의견을 나누어 보자)
- 3) 조사해온 해방공간의 모습(농촌과 도시, 정치, 경제 등을 중심으로)을 토대로 「병든 서울」에는 민족정신이 잘 반영되었는가에 대해 토론하시오.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품에서 드러나고 있는 ‘민족정신’의 요소를 찾고 이를 토론해보자)

<토론>의 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토론의 문제를 바탕으로 하여 의견을 나눈다. 학습자들이 토론을 하다보면, 한 쪽으로 치우치거나 주제와 다른 방향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도 한다. 이때, 토론의 흐름을 깨뜨리지 않는 선에서 교사의 적절한 발문과 약간의 개입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토론이 끝나면, 자유 발표를 유도한다. 이후 결과물을 내게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정리와 평가>단계에서는 토론의 내용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주거나, 새로운 과제를 제시해 주는 것도 좋다.

이상과 같이 오장환 시의 주제에 따른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였다. 그의 시세계의 주제와 관련지어 각 주제별로 적당한 교수법의 단계를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학습 방법을 학습자의 상황을 고려한 교수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어서 오장환 시의 교수-학습의 실재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3. 교수-학습의 실제

오장환 시세계는 식민지의 상황과 해방이라는 시대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의 ‘현실 인식’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이러한 ‘현실 인식’ 차원의 주제 중에서도 식민지 현실에 대한 반영으로 다양한 고향인식이 눈에 띄며, 명시로 손꼽히는 「고향 앞에서」를 학습제재로 하고자 한다. 「고향 앞에서」는 고향이라는 향토적 서정을 통하여 현실 인식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본 교수-학습의 실제에 적당한 시 텍스트라 판단된다. 또한 새로운 작품을 선별하여 제시하는 것보다 현행 교과서에 실린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교수법의 실재를 제시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를 바탕으로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학습자중심의 교수-학습 방법 중 상호 협동 학습에서도 모둠별(소집단) 학습의 형태를 취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한 다음 차시의 학습으로 시 창작 학습 형태를 통해 「고향 앞에서」의 실재를 마련해본다.

대 단 원	IV. 문학과 삶
소 단 원	1. 역사 속의 삶과 문학 (1) 현실 인식
작 품	「고향 앞에서」

3.1. 단원과 작품의 선정

오장환의 시는 앞서 교과서 분석을 통하여 살핀 바와 같이 현행 교과서에서는 본문으로 실고 있지 않다. 따라서 대단원명으로 적당한 주제를 잡고, 소단원명은 현실 인식에 맞춰 역사와 함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기존 문학

의 소단원명⁶⁷⁾ 중에서 적절한 것을 취해 수정하였다.

역사에 대한 진지한 탐구에서 나온 좋은 문학 작품은, 역사 속에 있는 개별적 삶을 생생하게 형상화하고 이를 통해 역사가 지니는 의미를 정당하게 드러낸다. 그 속에 녹아있는 삶의 모습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거와 연관을 맺음과 동시에 미래의 원인으로써 연관을 가진다. 즉 작품 속에 녹아있는 현실을 통하여 우리는 더 나은 삶을 꿈꾸고 힘겨운 실제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의지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단원을 “문학과 삶”으로 설정하여 문학 안에서 삶이 어떻게 형상화되는지 학습한다. 그 소단원으로는 “역사 속의 삶과 문학”을 설정하여 역사 속의 삶에 대한 의미를 찾아본다.

이러한 단원의 선정에 맞추어 오장환의 시 중에서 그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고향 앞에서」를 주요 학습제재로 한다. 「고향 앞에서」는 식민지 현실의 비극을 고향에 대한 회귀의식을 통하여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따라서 시적 화자의 현실 인식과 관련지어 고향이 쓸쓸한 공간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시인이 처한 현실과 관련지어 학습할 수 있다. 또한 오장환 시의 현실 인식이 고향이라는 공간을 통하여 드러나, 향토적 정서가 곳곳에 배치되었다는 점에서도 오장환 시의 대표작이며 적절한 학습제재가 될 수 있다.

67) 현행 제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문학교과서 중에서 상문사의 문학(하)는 이용악의 시를 대단원을 “Ⅴ. 문학과 삶”으로 하고 소단원을 “2. 역사속의 삶과 문학 (1) 현실의 반영 - 「낡은집」”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 학습목표로는 “1. 문학 작품은 역사를 담고 있음을 안다. 2. 역사적 현실이 어떻게 문학 작품으로 형상화되어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3. 작품을 통해 드러난 작가의 역사의식, 현실 인식을 알고 비판한다.”으로 하고 있다. - 강황구 외, 고등학교 『문학(하)』, 상문연구사, 2004, pp. 173~180.

3.2. 학습형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중심의 교육과 상황중심의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68) 이중에서도 모둠별 학습은 소집단으로 학습자 상호간의 협력 학습으로 주로 토의와 토론이 주된 형태로 학습에 이용된다. 이는 현실 인식의 교육이라는 본고의 주제를 효율적으로 소집단의 토의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학습 형태이다.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협동 없이는 공동생활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교실 수업에서 협동학습은 동료 간의 상호작용으로 교육이 ‘삶’ 그 자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교사의 지시적이고 즉각적인 관여가 없이 학습자간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하여 수업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제시한 것은 ‘시 창작’ 학습 활동이다. 시교육에서 최종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은 감상자에서 창작자로 발전하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여 오장환 시를 감상하고 이해하는, 내면화 단계로 시를 창작하게 한다. 여기서 시의 소재는 학습자가 생활 속에서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되, 학습한 ‘현실 인식’을 토대로 한다.

3.3. 단원 학습계획

소단원은 총 2차시로 구성하며, 1차시에서는 시작품 감상과 작품 속의 현실 인식 파악을 중점으로 한다. 2차시에는 작품 속의 현실을 내면화하는

68) “교수· 학습 운용”에서 (2)번 항목에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사이의 상호 작용을 강조하고,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며, 개인과 공동체 차원의 문학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도한다’와 ‘작품의 생산 활동은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발표, 토의· 토론, 협동 학습, 모작, 재구성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되, 학습자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도록 지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별책 05] “국어과 교육과정”, pp. 115~117.

단계로써 학습자의 현실과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창작활동으로 이어지게 한다.

학습 단원	차시	교수 · 학습내용	학습자료
1. 역사 속의 삶과 문학 (1) 현실 인식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원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작품 감상을 통해 수업 주제 확인 식민지 상황 이해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통한 현실 인식 찾기 	교과서, 컴퓨터, 학습지, 칠판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 학습 확인 및 학습 목표 제시 작품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현실과 연관 지어 생각하기 제시된 내용 작성을 바탕으로 시 창작하기 	교과서, 학습지, 칠판

3.4. 교수-학습 활동

본고에서는 1차시와 2차시의 학습 중 ‘현실 인식’과 관련한 역사적 현실 인식을 목표로 하는 ‘1차시 - 모듈별 토의 학습’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차시는 1차시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간략하게 제시한다.

(1) 1차시 모듈별 학습 활동

단원명	▶ 대단원: IV. 문학과 삶	교과명	📖 문학 (하)	차	1 2
	▶ 소단원: 1. 역사 속의 삶과 문학 (1) 현실 인식	학습 대상	📖 고등학교 2학년	시	
학습 목표	<input type="checkbox"/> 문학 작품은 현실의 반영임을 파악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시에 나타난 현실 인식을 통하여 시인이 처한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고 말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타인의 여러 가지 의견을 정리하고 나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학습 자료	과워포인트(ppt)자료, 학습지, 참고자료				

학습 단계	교수 - 학습 내용	시간
가.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기 유발 및 학습목표 제시 ● 모듈편성 및 자리배치 확인 	8분
나.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하기 - 오장환 시인, 시에 대한 배경지식 파악 ● 개별활동 - 시 감상하고 시의 내용 파악 ● 모듈별 활동 - 조사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시의 시대적 배경 파악하고 토의하기 	30분
다.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시학습 정리 ● 다음 차시 예고 및 과제 제시 	12분

가. 도입

① 동기유발 및 학습목표 제시: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학습하게 될 작품과 관련한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과 교사가 발문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전체 발문을 통하여 학생들의 생각과 본 단원의 목표를 연관시킨다.

<발문>

- 1) “만약 여러분이 소설가 혹은 시인이라면 무엇을 소재로 하겠는가?”⁶⁹⁾
- 2) “그렇다면 우리가 접하고 있는 많은 문학작품에서 다루는 현실은 무엇인가?”

1)의 발문의 답으로 학생들은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자신의 문제나 사회의 문제를 선택하게 된다. 이는 학습자 자신을 둘러싼 삶 자체가 현실이며, 현실에 대한 관심이 곧 문학의 소재가 된다는 것을 인지시키는 발문이다. 다음으로 2)의 발문을 통해 문학이 반영하는 현실은 그 당대의 특수한 문제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는 특정한 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에도 결국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삶의 문제가 보편적 요소로 드러나기

69) 전국국어교사모임, 『함께하는 국어수업』, 내일을여는책, 1996, pp. 541~544.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보편적인 현실은 오늘날의 독자에게 의미를 지닌다. 발문 후에는 수업의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학습할 내용과 방법 그리고 모둠별 토의 수업 내용을 설명한다.

② 모둠편성 및 자리배치 확인: 좌석배치나 모둠 편성은 수업 시간에 수행하면 산만해지거나 다른 반에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전 시간에 모둠 구성을 알려주고, 자리배치는 쉬는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모둠의 편성은 학습능력이 상이한 이질적 모둠으로 편성하였을 때 가장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협동학습은 학습자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 협력하면서 배울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질적인 구성원의 적정 인원을 5~6명으로 하고 모둠을 구성한다. 각 모둠별로 국어과 성적의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을 한 명씩 배치하고, 중간 정도인 학생을 2명, 그 밑 단계의 학생을 2명 정도로 배치한다.⁷⁰⁾ 단, 학생들의 성적과 관련한 편성임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고, 또 평소 친분이 있는 학생들은 떨어질 수 있게 배치하는 교사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자리배치는 모둠별 대형으로 앉을 수 있도록 책상이 마주보게 한다. 고등학교 학생들의 한 반의 인원이 약 35~40명 안쪽이라 하였을 때, 6명씩 총 6모둠~7모둠이 구성된다. 이를 옆두에 두고 좌석을 배치한다.

나. 전개

① 진단하기: 오장환 시인과 다음에 낭독할 시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전체에게 발문하거나 지목하여 발표를 시킨다.(발문 내용: “오장환이라는 시인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는가?”)이후에 간략히 오장환에 대해 설명한다.

70) 남웅, 「협동학습을 통한 문학교육 방법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2, pp. 52~53.

② 개별활동: 「고향 앞에서」을 낭독한 음성 파일⁷¹⁾을 제시한다. 음성 파일을 청취한 이후에 다함께 시를 낭독한다. 낭독은 시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시의 리듬과 분위기를 파악하는 활동이다. 여기서는 전문적인 낭독자의 음성과 적절한 배경음악을 통해 학습자의 감성을 자극시킨다.

‘이해하기’ 단계에서는 학습지의 빈칸을 채우게 한다. 이는 시의 내용을 파악하는 단계로, 각 연에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학습 활동이다

구 분	중 심 내 용
1연	해방이 될 무렵의 강가
2연	사람이 그리워 나룻가에서 서성거림
3연	고향의 쓸쓸한 주막
4연	현재 고향의 모습
5연	장꾼들에게 물음
6연	과거의 고향 모습과 귀향하고자픈 심정

<고향 앞에서의 내용파악하기>

다음으로 시적 화자의 고향이 쓸쓸하게 그려지고 있는 이유를 시인이 처했던 현실 상황과 관련하여 생각하게 한다. 식민지 치하라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시적 화자가 그리는 고향은 실재하는 고향이 아닌 내면적인 관념의 대상이다. 즉 일제의 탄압과 수탈로 파괴해진 현실의 고향과 이상적인 기억 속의 과거 고향의 모습에서 오는 시적 화자의 괴리감은 고향을 쓸쓸하고 그리운 공간으로 그려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③ 모둠별 활동: 모둠별 활동은 앞서 제안한 모둠별 대형으로 앉아서 진행한다. 개별 과제로 제시했던 “일제 식민지 시기의 민중의 삶의 모습을 담

71) 이에 대한 자료는 인터넷 사이트 (<http://www.edunet4u.net> 에듀넷: 중앙교수학습센터) “중앙교수학습센터>수업자료>교과자료”에 [교수용 SW]로 링크되어 있다.

은 사진과 그 내용을 조사해오기”를 바탕으로 모듈별 토의 과제를 제시한다.

<모듈별 토의 과제>

1. 자신이 조사해온 사진과 내용을 통하여 민중의 삶의 모습을 모듈별로 발표해 보자.
2.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오장환은 어떻게 시로 형상화 하였는지 함께 토의해 보자.
3. 또한 시적 화자의 태도에 대하여 자유롭게 말하고 정리해 보자.

1번의 토의 과제는 **[참고자료2]**⁷²⁾와 같이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일제시기의 민중의 모습을 사진으로 제시한다. 사진은 “위안부대, 강제징병, 강제징용, 총기실험” 등의 잔혹하고, 끔찍한 일본의 만행으로 고통 받는 민중의 모습이다. 이를 통해 식민지 시기의 민중의 삶을 유추하고, 그 느낌을 자유롭게 발표하도록 한다.

이를 토대로 2번에서는 일제의 만행은 민중을 고통으로 몰아넣었고, 그 속에서 식민지 시기의 문인들은 이를 인식하고 많은 문학작품으로 형상화하게 된 상황을 토의하게 한다.

다음으로 3번에서는 **[참고자료3]**의 내용을 토대로 모듈별로 작성한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다.

다. 정리

정리단계에서는 본시 학습의 내용을 정리하고 다음 차시에 대한 예고와 과제를 제시한다. 다음 차시에 이어 시간에 학습한 내용에 이어서 개별적으로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시를 창작한다고 예고한다.

72) 사진의 출처는 “<http://art.chosun.com> (인터넷 조선일보)”와 “<http://www.hermuseum.go.kr> (일본 위안군피해자 e역사관)”이다.

(2) 2차시 - 시 창작 학습

단원명	▶ 대단원: IV. 문학과 삶 ▶ 소단원: 1. 역사 속의 삶과 문학 (1) 현실 인식	교과명	📖 문학 (하)	차	2 2
		학습 대상	📖 고등학교 2학년	시	
학습 목표	<input type="checkbox"/> ‘현실 인식’이 시에서 어떻게 형상화 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시를 통하여 현실의 삶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안목을 가지고, 이를 말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자신의 체험에 적용하여 능동적으로 문학 창작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학습 자료	교과서, 학습지				
학습 단계	교수 - 학습 내용			시간	
가.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학습 확인 ● 동기 유발 및 학습목표 제시 			10분	
나.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장환 시에서 ‘현실 인식’ 요소 찾기 ● 가정과 학교에서의 “나”를 주제로 글 작성하기 ● 자신의 체험을 적용하여 시 창작하기 			33분	
다.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원 정리 ● 다음 차시 예고 및 과제 제시 			7분	

가. 도입

전 차시에 학습한 오장환 시를 통하여 역사의 단면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발문을 통하여 묻는다. 이후에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수업의 내용을 설명한다.

나. 전개

① 오장환 시에서 ‘현실 인식’ 요소 찾기: 오장환의 시는 가족과 식민지 현실에서의 인식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 다수가 있다. 오장환

의 현실 인식이 드러나는 시편들 중에서 두 편 정도를 선정하여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제시하고 감상을 자유롭게 발표하도록 유도한다.

가족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는 「다시 美堂里」를 통하여 가족의 구성원 중에서도 어머니에 대한 시의 형상화를 학습한다. 두 번째 시 텍스트로는 「病든서울」을 제시하고, 공동체 의식이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짚고 “병든 서울”로 인식하게 되는 시대적 상황과 연관시켜 살핀다.

1. 「다시 美堂里」속에서 시인은 자신을 “탕아”라고 인식하고 있다.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을 형상화한 시에서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유를 자유롭게 발표하게 한다.
2. 「病든서울」에서는 해방의 기쁨과 함께 현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실망과 좌절이 나타난다. 그러한 실망과 좌절은 다시, 새로운 모습을 갈구하게 하고 이는 공동체를 통해 구체화된다. “우리모든 人民의 이름으로/우리네 人民의 共通된 幸福을 위하여/우리들은 얼마나 이것을 바라는 것이냐.”의 시구가 그것이다. 이는 해방직후의 현실에 대한 인식으로 이를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당대의 모습을 나타내는 자료를 제시한다.

② 가정과 학교에서의 “나”를 주제로 글 작성하기: 학생들의 현실체감과 관련하여 자신의 가족이나 학교생활 등에 대한 이야기를 써 보게 한다.⁷³⁾ 앞서 살펴본 Ⅲ장 ‘가족 인식’에서 가족사쓰기와 같은 학습 활동으로, 이를 통하여 가족 구성원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가족사를 사회와 역사의 문제와 관련시켜 작성하게 하여 자연스럽게 사회에 대한 인식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73) 제7차 교육과정해설서에는 이와 관련하여, “작품의 창작활동은 처음부터 높은 수준을 요구하지 말고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개작, 모작, 생활 서정의 표현과 서사문 쓰기 등의 단계를 거치되, 자신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지어 지도한다. 특히, 모든 학습자에게 전문적인 문예 작품 창작활동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는다.”라는 지침이 있다. 이는 이전의 학습자가 문학 활동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개선하려는 교육과정의 설정이다. 뿐만 아니라 창작활동을 통해 문학을 왜 배우는가를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한 목표가 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② 국어』, 교육인적자원부, 2001, pp. 323~324.

③ 자신의 체험을 적용하여 시 창작하기: 자신의 실제적 체험과 주변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글짓기 학습 활동을 바탕으로 시를 창작하게 한다. 자신의 실제의 체험은 가족사 이야기와 같은 친숙한 주제를 선정하여 간단하게 글로 작성하고 다시 이를 시로 쓸 수 있게 한다.

다. 정리

“정리” 단계에서는 ‘현실 인식’ 과 관련한 문학작품을 학습함으로써 그 당대의 사람들의 문제와 삶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측면으로 정리하면서 수업을 마친다.

IV. 오장환 시교육의 의의

문학교육을 통하여 학습자는 삶의 다양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며 개인과 사회, 인간과 자연, 인간과 삶의 문제로 발전시켜, 문학을 통하여 공동체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 동참한다. 공동체의 삶을 이해하고 실현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개개인의 의식에 연대감이나 동질감 등으로 나타나 중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⁷⁴⁾ 이를 바탕으로 문학교육이 인간과 삶의 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그 사회적 인식을 중요시 여겨 왔음을 이해할 수 있다. 문학작품을 통하여 현실을 인식한다는 것은 문학적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체계화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곧 문학이 타인의 삶에 대한 대리경험을 부여, 자신의 삶을 객관화시키는 과정으로 자리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런 문학적 체험은 무질서한 경험에 질서를 부여하고 의미를 생성시킨다. 작품을 통한 삶의 발견이 없다면, 우리는 존재적 진실을 묻어두고 도착과 왜곡의 허상에 함몰되고 말 것이다.⁷⁵⁾ 문학은 동일시에 의하여 인간형성 기능을 수행하며, 나아가서는 현실 구조를 총체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교육적 의의를 가진다는 것이다.

시는 이러한 총체성의 획득을 목표로 하는 현실과 소통하는 서정적 장르라 할 수 있다. 시를 통한 현실 인식 교육은 식민지배나 광복 등과 같은 역사적 상황을 토대로 인간의 삶을 이해하게 한다. 작품 속의 현실은 삶과 연관되며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 시를 읽는 학습자에게도 의미 있는 현실로 인식되는 효과를 가진다. 이는 다시 과거와 연관을 맺음과 동시에 미래의 원인으로써 연관을 가진다. 그리하여 학

74)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② 국어』, 교육인적자원부, 2001, p.61.

75)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제4판』, 삼지원, 2004, pp.88~90.

습자들이 현실 인식을 바로 세워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데에 유용한 체험과 능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문학교육의 특성과 관련하여 오장환 시세계에 전반에 걸쳐 드러나고 있는 ‘현실 인식’과 그 반영은 현대의 시교육의 지향점과도 일치한다. 최근의 시교육의 관점은 변화를 거쳐 ‘상황 중심의 시교육’으로 옮겨왔다. 시 텍스트를 이해할 때 독자가 되는 학습자의 상황을 고려하는 것으로 사회적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오장환의 시는 삶과 시를 일직선상에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가 살았던 시대의 모습을 시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좋은 학습 체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상황적 관점의 시교육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시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둔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장환 시세계는 시를 창작했던 시기와 관련지어 텍스트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오장환의 시는 시대의 전환기적 작품들로서 교육적인 특별한 의의를 갖는다. 이는 일제 강점기의 암흑과 해방이라는 기쁨의 대립적 상황이 학습자에게 다양한 시적 체재를 역사적 상황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과거에 있었던 사실, 특히 역사적인 사건을 사진이나 설명된 글을 통해서가 아니라 시인의 육성을 통해 듣게 됨으로써 당대의 현실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현실 체험은 자아성찰과 인식의 확장을 이끌어내며, 그의 시세계에서 드러나는 각 주제에 따를 때 더욱 구체화된다. 그 구체화의 양상을 드러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오장환 시의 ‘자기인식’의 교수법을 통하여 학습자 자신의 내적 사고에 주의를 기울이게 됨으로써 자아를 성찰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기인식이란 자신의 내적 사고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사회적

대상으로 자기를 인식하는 것이다.⁷⁶⁾ 자기인식이 부족할 경우에는 타인과의 올바른 대인관계 형성이 어려우며, 일에 대한 자신감도 부족하게 된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에 속하게 되고, 타인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 따라서 적절한 자기인식은 사회 속에서 타인과 자신과의 관계 맺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자기인식 형성에 오장환 시는 다양한 계기를 제공한다. 오장환의 ‘자기인식’은 <성씨보>, <불길한 노래>의 탄생의 배경이 되는 가족의 관계에서 출발하여 사회 그리고 민족으로 옮겨 간다. 오장환은 가족에게서 비롯된 전통에 대한 부정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다양한 은유를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전통을 벗어난 사회의 현실에서 그의 패배감과 절망감이 표출되고 있다. 이로써 학습자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나’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러한 존재론적인 물음은 삶을 풍요롭게 하며, 확장적인 사고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둘째, 오장환 시는 식민지 현실에 대한 첨예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바, 이를 통하여 학습자는 사회에 대해 문제의식과 함께 깊은 사고를 하게 된다. 오장환은 시를 통하여 사회에 대한 관심의 표출을 넘어, 사회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그는 산문을 통해서도 시를 통해 암묵적인 저항의 발판으로 삼아 비참한 현실을 나타내고자 하였음을 밝힌 바 있다. 식민지 상황에서 그가 시인으로서 할 수 있었던 일은 시를 쓰는 일이었으며, 이로써 식민지 사회의 문제점을 고발하고자 노력했던 흔적이 보인다. 이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끊임없는 회구로써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오장환 시를 낭독하고 이해하면서 학습자는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유추하게 된다. 식민지의 상황과 광복의 공간에서의 혼란한 사회모습은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는 시인이 처

76) 은혁기, 「청소년들의 자기인식, 타인인식, 대인기술 및 대인관계만족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9집, 한국청소년상담원, 2001, p. 139.

했던 사회적 배경은 학습자에게 과거 소통의 공간이자,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매개가 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것이다.

셋째, 오장환 시의 현실 인식에서 드러나고 있는 공동체적 민족정신은 학습자에게 민족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다. 현대사회의 청소년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에게 맞춰져 있다. 한 가구당 자녀의 수가 한 명에서 두 명을 넘지 못하는 가족의 현실은 청소년들의 자기중심적 사고를 조장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청소년들의 자기중심적 사고는 타인에 대한 배려의 부족이나,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청소년들이 사회인이 되었을 때에, 사회의 균열과 갈등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이는 심각한 문제라 하겠다.

반면에 오장환 시에는 ‘노래’라는 시어를 통해 민족 공동체적인 의식이 나타나고 있다. ‘노래’라는 시어의 빈번한 사용은 단순한 표현상의 특징이 아니라 그의 민족에 대한 의식의 발현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더욱이 그의 시에서 ‘노래의 세계’는 개인의 차원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부르고 지향하는 세계로 드러나고 있다. 개인 차원의 소망이 아닌, 민족 전체의 염원이 되었을 때 그 열망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른다. 그렇기에 공동체가 함께 이룩해낸 성취의 기쁨은 배가 되어 돌아오는 것이다. 이러한 오장환 시세계에 드러나는 민족 공동체에 대한 의식을 통하여 학습자는 민족에 대한 자각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삶에 대한 의식을 깨우칠 수 있게 된다. 이는 자기중심적인 학습자에게 민족정신을 고양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과 같은 오장환 시교육을 통해 학습자는 청소년기에 필요한 정서 함양은 물론 역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 또한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사회에 대한 문제적 인식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V. 결 론

문학교육에서 지향하고 있는 문학을 통한 삶의 발견은 곧 현실에 대한 궁극적 탐색을 통한 삶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이는 문학이 현실을 반영하고, 수용자는 이를 통해 현실감을 예리하게 갖는다는 구조를 갖게 한다. 이를 토대로 본고는 오장환 시인의 '현실 인식'에 주목하여 교수법을 모색하고 제시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교수법을 모색하기 이전에 그의 시세계에 드러난 주제의 양상은 자아성찰을 통한 자기인식, 식민지현실에서의 고향인식, 민족정신의 발현으로 나누어 살펴 수 있었다.

오장환은 1930년대에 주목받은 시인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시인이 되기 이전에 인간이 되기를 원했고, 이는 시가 삶에 대한 반영이라는 생각의 발로였다. 그리하여 끊임없는 시작(詩作)활동에서 얻은 많은 작품들은 다양한 주제로 드러나는데, 본고는 이 중에서도 '현실 인식 측면'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주제는 전통의 습속에 대한 거부와 자기부정으로 드러난다. 자기성찰은 곧 식민지 현실 속에서 지식인의 고뇌가 되어 고향에 대한 다양한 인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고향은 그에게 그리움의 공간이자, 회귀의 공간으로 드러나며 실재하지 않는 과거의 모습에 시인의 이상이 결합하여 드러나기도 한다. 그러나 황폐한 현실 속의 고향은 식민지에서의 민중과 그의 삶을 나타내는 기제로 작용한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인식은 '노래'라는 주제를 통해 더욱 구체화된다.

시의 전반에 걸쳐 드러나는 노래의 세계는 시인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세계에 대한 희구이자, 참혹한 식민지현실을 벗어나고픈 심정의 반영이다. 마침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광복의 순간에 노래는 격양될 수밖에 없고, 그 기쁨을 민족과 함께 하려는 의지가 표출된다. 다시 광복의 공간의 비정한

현실에 실망을 하지만, 여전히 민족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픈 의지가 보이는 것도 노래를 통한 민족정신의 발현이라 하겠다.

오장환 시에서 드러나는 위와 같은 ‘현실 인식’의 주제에 따라 교수법을 제안해 보았다. 7차 교육과정의 문학 교과서에 실린 오장환 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이를 토대로 한 ‘자기인식’의 교수법으로는 가족사 쓰기를, ‘식민지 현실 인식’의 교수법으로는 상호 협동 학습을, 마지막으로 ‘민족정신의 발현’의 교수법으로는 토론을 제시하였다. ‘가족사 쓰기’의 학습 활동은 시를 창작하기 이전에 학습자가 가족사를 소재로 하여 이야기를 구성하는 방법이다. ‘상호 협동 학습’은 학습자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자료를 학습제재로, 학습자간의 협력을 통해 시에 대한 이해를 이끌어 내는 학습 활동이다. ‘토론 학습’은 오장환 시에서 민족정신을 읽어내고, 그 당시의 역사적 사건을 자료를 바탕으로 시를 해석하고 토론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 나가는 학습활동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주제에 따른 교수법을 바탕으로 교수-학습 실제’를 마련하였다. ‘현실 인식’이라는 소단원을 설정하고, 그의 시 중에서 교과서 실린 「고향 앞에서」를 학습제재로 하였다. 그 학습 활동으로는 모둠별 토의 활동과 시 창작 활동을 제시하였다. 모둠별 토의 활동은 학습자 상호간의 협동을 통한 학습으로, 학습자는 동료와의 상호 협응을 통해 의미를 생성해 나간다. 또한 오장환 시에서 반영하고 있는 식민지에서의 시인의 ‘현실 인식’을 함께 토의함으로써 주입식이 아닌 주체적인 학습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학습 활동이라 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구안한 2차시의 시 창작 활동은 토의를 통한 작품 속의 현실 이해에서 나아가 학습자 자신의 현실을 둘러보고 이를 내면화 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상과 같은 오장환 시교육의 의의는 역사의 질곡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

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의 시에는 식민지 시기의 고난과 절망, 그리고 광복이 주는 환희가 현실에 대한 예리한 의식과 함께 드러나고 있다. 이는 오장환 시 주제에 따라 그 교육적 의의가 구체화 된다. 오장환의 시를 통해 학습자는 자기인식의 계기와 사회에 대한 인식의 계기를 마련하며, 민족정신을 고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오장환 시의 교수-학습의 실재를 단 한 작품만 제시하여 다양한 교수법을 제시 하지 못했다. 보다 다양한 작품에 대한 교수법의 구안은 물론 그 실재를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과제로 남으며, 교육 현장에서 실현하고 검증하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편, 오장환의 교수법이 ‘현실 인식’차원 측면에서 벗어나 시어나 형식실험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도 다뤄지기를 제안해본다.

[참고자료1] “8·15의 기억” - 해방에 대한 증언

① '진숙희씨의 해방에 대한 기억'의 일부

남편은 라디오를 통해 전황 소식에 귀를 기울이며, 입대일자를 계속 연기 했어요. 결국 어떻게든 안 가려고 미루다 해방이 되었죠. 해방 전날까지도 정보원이니 순사니 하는 사람들이 와서는 쇠로 된 것이면 손가락 하나까지 다 수집해 갔어요.

“지금 우리가 이기고 있다. 가진 것을 보태면 무기를 만들어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아끼지 말고 감춰둔 것 있으면 다 내놔라.”

이런 분위기였으니 해방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요. 그런데 남편은 밤에 자꾸 라디오를 들었으니까 뭔가를 눈치를 챘던 것 같아요. 나한테는 전날 밤까지도 말을 안 했죠. 그러더니 다음날 낮 12시쯤 남편이 병원으로 빨리 나오라고 하더군요. 갔더니 남편은 병원 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는 조그마한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켜고 방송을 들으라고 했어요. 일본 천황이 별벌 떨면서 항복 선언을 하는데, 그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던 겁니다. 나는 너무 놀라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어서, 분명 바깥에 아무도 없는데도 자꾸 유리창 밖을 살폈어요. 라디오 앞에서 앉지도 못한 채 불안해하면서 끝까지 들었죠. 천황의 방송이 끝나자 이어서 한국말 방송이 나왔어요.

“우리는 해방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라디오에서 우렁찬 목소리로 전 국민은 향해 소리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기적이 있는가’

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렇잖아도 일본이 진다. 가미카제가 자기가 폭탄이 되어서 자폭했다 등등 그때는 자주 그런 기사가 신문에 났어요. 그러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결국 너희들이 지고 말았구나. 그럼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되나. 해방이 됐다고 그랬는데, 라디오에서 해방이 됐다고. 주저앉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나면서부터 일제 치하에서 자랐잖아요. 그런데도 막 떨어지면서 기쁨이 솟더군요. 처음에는 겁이 나서 잘 들리지도 않았어요.

② '윤성남씨의 해방에 대한 기억'의 일부

나는 배가 너무 고파서 학교를 못 갔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해방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일주일 전부터 어른들은 ‘평안바람이 분다’고 수군거렸어요.

그 당시 나는 어려서 ‘해방’의 의미를 정확히 몰랐지요. 그래서 한 번은 내가 그 어린 나이에 동네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일본 군 주재소 앞에 나가 만세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놈들이 일본도를 쭉 빼더니 나를 쫓아오더라고요. 겁이 나서 동네 쪽으로 줄행랑을 쳤죠. 땀을 뻘뻘 흘리며 집에 와서 형들에게 말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이가 없죠.

“야, 이놈아 ‘조선해방만세’라는 것이 무슨 소리인 줄 아냐?”

형들은 일본이 망하고 우리 조선이 그놈들 간섭을 안 받는다는 뜻이라고 자세히 얘기해줬어요.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물었죠. 그럼 우리 ‘조선’이라는 것이 있고 ‘일본’이라는 것이 따로 있었냐고, 형들이 답답하다는 듯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야! 이놈아 우리 조선은 조선대로 있어. 그런데 일본 놈들한테 우리 권리를 빼앗겨서 이렇게 된 것 아냐.”

아무튼 그때 내가 일본 놈들한테 참말로 되게 한 번 몰린 일이 있었죠.

또 해방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 당시 면사무소에서 징용보급대로 나와서 징병해가고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병사계인데, 이 사람이 행방이 묘연해졌어요. 왜? 징용으로 끌려간 마을의 어느 집 아들이 남해안 군도에 가서 죽은 거예요. 가족들이 보기에 저놈이 데려가서 죽었으니 잡히면 그냥 놔둘 리 없겠죠. 그러니까 행방을 감춰버린 겁니다. 왜정 때 순사질 했거나 면장 일을 악질로 했거나, 고등계 형사질 해먹은 놈들은 죄다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한편 해방된 기쁨으로 마을잔치도 크게 벌였어요. 잔치는 동네에서 친일했던 사람이나 지주들이 그동안 지은 죄가 있어서인지 술을 빚어 대접했어요. 동네 풍장도 치고 저녁 내내 날이 새도록 노래 부르고 했어요. 물론 소작농들은 지주에 대해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죠. 악질 지주들은 도망을 많이 갔어요. 저놈 때려죽여야 한다고 몽둥일 들고 찾아오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미군정이 들어오고 나서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큰소리치고 논 줄 놈도 안취버렸어요. 그런 못된 짓을 했어요. 남의 집에 예쁜 여자 있으면 데려다 전부 오입질하고 말이죠. 알고도 말 못했어요. 광목이나 한 감 떠주고 잠자리하고 그랬다는데, 한번은 남편한테 걸려 두들겨 맞은 일도 있어요. ... 중략 ... 어쨌든 미군정이 들어오고 왜정 때보다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결국은 도로아미타불이라고 생각해요. 일본 놈들이 돌아가고 미군정 과도 정부 1, 2년 때에는 공출이 아니라 현물세를 냈기 때문에 적어도 먹기 살기 위한 것까지는 가져가지 않았죠. 그러나 현물은 농사를 많이 짓거나 적게 짓거나 똑같았어요.

[참고자료2] 파워포인트로 제시할 ‘일본 식민지 시기의 모습’

일본 식민지 시기의 민중



위문대(慰問隊) 만들기에 동원된 한국인 여자들



1907년 7월 즈음, 무고한 세 명의 조선인은 총기 살상 능력을 알아보려는 일본군의 실험 대상으로 총살당했다.



출전하는 학도병

일본은 전쟁 장기화로 물자와 군인들이 부족해지자 학병제를 실시했다. 이 사진은 '10월 27일 압단 장도중'이라고 학도병 이름이 기록된 기념사진. 장도를 기원하는 사람들의 글이 담긴 일장기를 들고 있는 모습에는 아직 학생 티가 남아 있다.(1944)

일본 홋카이도로 끌려간 한국인 토목 노동자들의 참혹한 모습



1939년 10월 1일 악명 높은 '국민징용령' 실시로 45만명이 넘는 한국인이 일본의 탄광·군수 공장·군사시설·공사장으로 끌려갔다.

[참고자료3] 학습지의 예시

모둠별 학습지

❖ <고향 앞에서> 내용 파악하기

📖 오장환의 <고향 앞에서>의 시의 각 연의 중심내용을 작성하시오.

구 분	중 심 내 용
1연	
2연	
3연	
4연	
5연	
6연	

❖ 자신이 조사해온 사진을 붙이고, 다음의 내용을 작성하시오.

<p style="text-align: center;"><사진 붙이는 란></p> <p>📖 자신이 가져온 사진을 설명 하 시오.</p> <p>📖 모둠별 토의 학습</p> <p>1. 오장환 시에서 식민지 현실 인식이 드러나는 구절은 무엇이며, 그렇</p>	<p>게 생각하는 이유를 쓰시오. (개별적으로 작성)</p> <p>2. 1번에 작성한 자신의 생각을 함께 이야기하고, 모둠 안에서 협의하여 아래의 내용을 작성하시오.</p> <p>1) ‘현실 인식’이 나타나는 구절과 이유 (3개 이상)를 쓰시오.</p> <p>2) 시인에게 고향은 어떤 곳인가?</p>
---	--

참 고 문 헌

1. 기본자료

- 강황구 외, 『고등학교 『문학(하)』』, 상문연구사, 2004.
———, 『고등학교 『문학(하)』 교사용지도서』, 상문연구사, 2002.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② 국어』, 교육인적자원부, 2001.
김병국 외, 『문학(상)』, (주)케이스, 2004.
김재용, 『오장환전집』, 실천문학사, 2002.
김학동, 『오장환 전집』, 국학자료원, 2003.
오세영 외, 『문학(하)』, 대한교과서, 2002.
———, 『문학(하)』 교사용지도서, 대한교과서, 2002.

2. 단행본

-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제4판』, 삼지원, 2004.
권혁준, 『문학이론과 시교육』, 박이정, 1997.
김일병, 『국어과 교수· 학습의 실제』, 박이정, 2005.
김학동, 『오장환 평전』, 새문사, 2004.
———, 『오장환연구』, 시문학사, 1990.
노 철, 『시 연구 방법과 시교육론』, 보고사, 2003.
문제안 외, 『8·15의 기억』, 한길사, 2005.
박영목 외, 『국어과 교수 학습론』, 교학사, 2005.

- 변영계, 『교수·학습 이론의 이해』, 학지사, 2005.
- 변영계 외, 『교육방법과 교육공학』, 학지사, 2000.
- 서정주, 『花蛇集』, 문학동네, 2001.
- 성기각, 『한국 농민시와 현실 인식』, 국학자료원, 2002.
- 신경림, 『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 우리교육, 2004.
- 신헌재 외, 『학습자 중심의 국어과 수업 방안』, 박이정, 2002.
- 원훈의, 『국어과 교육 연구』, 국학자료원, 1996.
- 유성호, 『현대시 교육론』, 역락, 2006.
- 유종호, 『다시읽는한국시인』, 문학동네, 2002.
- 윤여탁, 『시 교육론·Ⅱ』,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 이명찬, 『1930년대 한국시의 근대성』, 소명출판사, 2000.
- 이은봉, 『한국현대시의 현실 인식』, 국학자료원, 1993.
- 전국국어교사모임, 『함께하는 국어수업』, 내일을 여는책, 1996.
- 최두석, 『시와 리얼리즘』, 창작과비평사, 1996.
- 최현섭 외, 『국어교육학개론』, 삼지원, 2005.
- 허재영, 『국어과 교육의 이해와 탐색』, 박이정, 2006.

3. 학위논문 및 학회지

- 강지영, 「1930년대 후반기 현실주의 시연구:백석, 이용악, 오장환을 중심으로」,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9.
- 김신정, 「근대체험과 ‘고향’을 향한 시선-식민지 시대 오장환 시 연구」, 『畿甸語文學 vol.10-11』, 1996.
- 남 응, 「협동학습을 통한 문학교육 방법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

- 논문, 2002.
- 박민철, 「토론 학습을 통한 고등학교 국어 교수-학습 능력 신장 방안」,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 박윤우, 「오장환 시 연구:비판적 인식의 변모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9.
- 박정애, 「오장환 시 연구」, 전북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3.
- 심재희, 「오장환 시 연구」, 고려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0.
- 오교정, 「이용악 오장환 시에 나타난 고향 이미지의 대비 연구」, 전주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2.
- 유영희, 「새로운 교육과정 논의의 현황-문학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국문학교육학회, 2005.
- 은혁기, 「청소년들의 자기인식, 타인인식, 대인기술 및 대인관계만족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9집, 한국청소년상담원, 2001.
- 이미순, 「오장환 시에서의 ‘고향’의 의미화 과정 연구」, 『한국시학연구』, 한국시학회, 2006.
- 이예원, 「오장환 시 연구」,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7.
- 이원규, 「오장환 시 연구:비판적 인식과 잠재적 인식의 대응 관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0.
- , 「한국시의 고향의식 연구:1930~1940년대 시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4.
- 이은봉, 「1930年代 後期詩의 現實認識 研究:백석·이용악·오장환의 詩를 중심으로」, 숭실대 대학원 박사논문, 1992.
- 이희춘, 「오장환연구」, 『한국언어문학 제49집』, 한국언어문학회, 2002.

- 장영수, 「오장환과 이용악의 비교 연구」, 고려대 대학원 박사논문, 1987.
- 차호일, 「시교육의 관점 변화 및 지향점」, 『청람어문교육 30집』, 2004.
- 천기수, 「백석시에 나타난 작가의식연구:오장환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경북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1.
- 최승권, 「지역 문학의 교육 방법 연구-광주·전남 현대시를 중심으로」, 전남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5.
- 한정순, 「오장환 시의 현실 인식 연구」, 『호서어문연구 제4집』, 호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6.

4. 참고한 인터넷 사이트

<http://www.edunet4u.net> (에듀넷: 중앙교수학습센터)

<http://www.kice.re.kr> (KIEC: 한국교육과정평가원)

<http://art.chosun.com> (인터넷 조선일보)

<http://www.hermuseum.go.kr> (일본위안군피해자 e역사관)

<http://www.seoul.go.kr> (서울시청)

<http://cnhistory.njoyschool.net> (충남역사교사모임)

ABSTRACT

A study on the teaching method in Jang-hwan Oh's poetry

- Focusing on his awareness of reality -

Seo, Youn Kyung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Beginning with close examination of Jang Hwan Oh's awareness of reality shown in his whole literary works, this thesis tried to seek how to teach his poems. The awareness could be divided into self-awareness as self-examination, awareness of his hometown in the colonial situation and revelation of the national spirit through a 'song'. It could be seen as his whole thematic consciousness, which enabled me to confirm that he has very keen awareness of reality.

Investigating various methods and the actual practices of teaching his poems on the basis of the above three themes was based on analyzing school textbook. A single piece of his poem which is presented not as the text of a textbook but as the subsidiary material on the dimension of intertextuality cannot fully be taught.

This thesis, hereupon, investigated and presented various methods of teaching his poems as an alternative for the problem of containing them in the teaching materials. I sought as effective teaching methods 'writing family history' to the theme of 'self-awareness', 'mutually cooperative learning' to the theme of 'social awareness' and 'learning by discussion' to the theme of 'the spirit of ethnic community', and prepared concrete teaching-learning practices.

Teaching his poems as shown in the above provides learners with historical consciousness by having them experience the background of the times indirectly.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enables them to heighten self-awareness, social awareness and ethnic awareness.